



상상
그이상의
한옥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2015 Korea Hanok Competition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진행과정

공모 공고	2015. 3. 17
계획부문 워크숍	2015. 3. 28
참가등록 및 작품접수	준공·사진·계획부문 (2015. 7. 27 - 7. 31)
심사	준공부문 (8. 24 - 8. 25) 사진부문 (8. 12) 계획부문 (1차 8. 5/ 2차 8. 26)
시상식	2015. 10. 20
전시회	2015. 10. 20 - 23

운영위원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지민 교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김상태 교수
계명대학교 전통건축학과	류성룡 교수
SPLK 건축사사무소	김현진 소장
월간 SPACE	윤준환 작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정희 과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이강민 센터장

심사위원

준공·계획부문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이호열 교수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김은일 교수
SPLK 건축사사무소	김현진 소장
계명대학교 전통건축학과	류성룡 교수
가온건축사사무소	임형남 소장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한필원 교수

사진부문

건축사진 프리랜서	박재영 작가
Atelier 180	유현민 대표
한국시각콘텐츠학회	전형준 회장

기획의도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상 그 이상의 한옥

천 년을 가꿔 온 삶의 터전인 한옥이 어느 순간 손에 잡히지 않는 상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먹고 자고 일하고 사색하며 관혼상제를 치렀던 과거의 한옥은 신체의 일부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우리의 건축이고 문화였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생각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한옥은 관조의 대상으로, 또 상상의 영역으로 신체와 분리되었다.

신체와 분리된 한옥은 책을 읽어 익혀야 하고 답사를 통해 느껴야 하는 얇은 세계에 갇혔다. 파편적 지식으로 구성된 한옥의 이미지는 불안정한 상상으로 박제화되곤 하여 맹목적 집념이나 이충적 사고로 공허한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상상 속의 한옥은 점점 더 하늘 높이 멀어져가고 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인 '상상 그 이상의 한옥'은 상상 속의 한옥을 건축적으로 재 정의하는 작업이다. 상상을 넘어서는 방향은 아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 이웃 간의 배려 등 한옥 본연의 가치는 반드시 마당이나 처마 등 구체적인 건축요소를 통해 실증되어야 하고, 현대인의 복잡다단한 신체의 움직임을 반영한 현실 공간 속에서 상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옥이어야 한다는 점이 이번 공모전의 가장 큰 도전과제이다. 구조와 양식으로 규정된 한옥의 제도적 정의를 해체해도 좋으나, 집적된 전통의 맥락과 건축적 정수가 계승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실천적 측면에서 설득력을 지녀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새로운 몸과 삶에 맞춘 한옥의 정의를 제시하는 일에 최고의 상상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차례

진행과정 / 운영 및 심사위원	2
기획의도 / 차례	3
심사총평	3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9
올해의 한옥상	13
올해의 한옥상	17

사진부문

일반인	대상	23
	특별상	25
	금상	27
	은상	29
	동상	31
	입선	33
청소년	특별상	41
	금상	43
	은상	45
	동상	47
	입선	49

계획부문

대상	55
특별상	59
금상	61
은상	63
동상	67
입선	73

운영위원장 강평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주최로 2011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운영 위원회를 통하여 '상상 그 이상의 한옥-한옥은 □이다.'로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배려로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주거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한옥이 꽤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생활문화 속에서 한옥의 존재는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한옥이 우리 한국인의 오랜 문화라는 근본적 이해를 접어 둔 채 오직 이미지화된 대상으로만 다루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의 제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의 한옥을 상상하되 한옥에 대한 재 정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 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취지입니다.

공모 분야는 한옥준공, 한옥계획, 한옥사진 총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계획부문에서는 공모전의 취지와 한옥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갖고자 사전 워크숍행사를 대전 무형문화재전수관 및 동충당 일대에서 갖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되었던 사전 행사를 올해는 서울외의 참가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 처음 개최한 것입니다. 준공부문은 최근 5년간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진부문은 일반인과 청소년부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올해 운영위원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김상태 교수, 계명대학교 전통건축학과 류성룡 교수, SPLK건축사사무소 김현진 소장이 참여하였고, 사진분야는 월간SPACE 윤준환 작가 그리고 주최자인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정희 과장, 주관자인 국가 한옥센터 이강민 센터장이 참여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공모전의 주제를 비롯하여 공모지침, 심사위원회 구성 등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공모전 개최는 3월 23일에 한옥공모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지하였습니다. 참가등록 및 작품접수는 7월 27일부터 7월 31일 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되어 준공부문 10작품(서울3, 경기4, 경상2, 해외1), 사진부문 510개 작품, 계획부문 57개 작품이 응모 하였습니다.

심사는 8월 한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계획부문의 1차 심사는 패널 심사로 진행하였고 거기에서 2차 심사대상작 18작품을 선정 후 모형 및 발표심사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 후 최종 수상작을 선정 하였습니다. 준공부문은 서면심사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한옥을 평가하였고 사진부문은 제출된 사진을 출력하여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10월 20일 코엑스에서 건축산업대전 및 녹색건축 한마당 행사와 연계하여 시상식이 개최되었고, 코엑스 B전시홀에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한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장 김지민

목포대학교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심사위원장 심사평

2015년 올해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상상 그 이상의 한옥'이라는 기획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옥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문화자산으로 늘 우리 생활과 함께해 왔으나 근대이후 점차 생활 주변에서 격리되어 상상 속의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오늘날의 건축풍토에서 한옥을 재해석하여 우리 생활 속에 한옥의 참된 가치를 되살리고자 이번 한옥공모전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한옥 공모전의 준공 및 계획부문 심사과정을 통해 다양한 현대 한옥은 물론 창의적이며 기발한 한옥 계획안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와 농촌마을 곳곳에서 미래지향의 한옥을 통해 한옥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준공부문 작품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의 한옥'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서울 종로구 소재"청운문화도서관"은 자연에 접한 경사지의 특성을 심부 활용한 한옥형 도서관이었습니다. 공공 도서관이 수행해야할 다양한 건축 프로그램을 한옥으로 적절하게 해결한 뛰어난 작품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고민까지도 설계에 반영하여 섬세하게 해결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의 한옥상'을 받은 "흥천어린이집"은 한옥으로 구현한 어린이집입니다. 전통적인 한옥의 조형적 특징과 아래층의 현대적인 건축공간을 무리없이 통합하여 기능적이면서 조형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 한옥은 공히 공공적인 용도의 건물을 한옥으로 지어 다양한 계층, 특히 미래 세대주역인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한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경북 김천의 산골마을에 위치하고 있는"김천 학이재"는 가족들의 거주공간인 안채와 손님을 위한 사랑채를 별도로 건축한 한옥이었습니다. 내외공간의 구성은 현대적인데 반해 재목을 결구하는 구조기법 등은 전통적인 기법을 충실하게 따라 지은 현대 한옥으로 진화하는 한옥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즉 전통한옥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새로운 건축경향과 재료를 적극 수용하여 변화를 추구한 한옥이었습니다. 특히 사랑채는 현대적인 목욕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활동과 교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은 특징적인 한옥으로, 안쪽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목욕할 수 있게 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한옥 계획부문 심사는 1차 패널 서류심사, 2차 모형 및 발표를 거쳐 최종 18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사에서 대상을 받은

'도시한옥의 풍경을 담다'는 기존의 도시 공간에 한옥과 현대건축을 도입하여 상업적인 가로 속에서 한옥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도시 조직에 한옥의 장점을 잘 표현한 수작이었습니다. 이번에 특별상을 받은 '더불어 사는 집'은 전통적인 목조 가구식 구조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방식을 제안한 작품으로 현대주거로서 도시 한옥형 주택을 제안한 작품이었습니다. 외부 형태는 한옥 테라스 등으로 다소 실험적이기는 하나 도시 내에서 다양한 한옥의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금상을 받은 작품 역시 도시형 생활한옥의 새로운 유형을 제안한 것으로 현대건축과 한옥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 제안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은상을 수상한 두 작품은 기존 한옥 밀집지역인 '서순라길' 일대에 한옥가로를 형성하는 등 세밀한 공간구성이 특징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은상을 받은'초가삼간 더하기'는 기존 농촌주거에 한옥을 더하는 방식을 제안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밖에 동상 수상작에는 인쇄단지 건물을 한옥으로 제안한 계획, 청소년을 위한 한옥 체험공간 및 복합문화시설로서 한옥 제안 등 현실적인 생활 주변에서 한옥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고민한 우수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본상 수상작 외에 입선한 10개 작품들도 현대한옥의 보급과 대중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한 흔적이 역역했으며, 미래 한옥의 가능성을 가능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올해의 한옥상'을 수상한 우수한 한옥작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린바와 같이 한옥공모전은 한옥의 진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2011년 이후 국가한옥센터가 매년 준공 한옥과 한옥계획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옥공모전은 이제 이 분야의 유일한 공모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많은 기성 작가와 대학생들이 한옥의 진정한 가치와 역사성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옥이 상상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을 그날이 멀지 않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한옥공모전이 우리의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한옥의 현대화와 미래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인사에 가뵙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장 이호열

부산대학교 교수

사진부문 심사평

올해 한옥공모전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재영입니다. 오랫동안 전통건축으로의 한옥의 모습을 다루어 왔던 상황에서 이번 한옥공모전은 다양한 한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옥은 오랫동안 우리의 주거문화를 지속하여온 것이고 보편적인 정서와 시대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표현하여 제출된 작품은 오늘날의 다양한 한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올해 한옥공모전에는 과년도에 비해 작품의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고 한옥의 자연과 어우러진 풍경을 묘사하는 작품이 다소 출품되었습니다. 한옥의 특징이 한옥이 위치하게 되는 주변의 상황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됩니다.

대상을 수상한 '고즈넉함 속으로'는 전반적인 한옥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금상으로 선정된 '자연을 담은 한옥'은 사람이 만들어낸 한옥의 대문의 틀에 담긴 자연은 그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집을 나서면서 마주했던 자연을 느끼게 해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특별상인 '하회마을 전경'은 설경으로 덮혀진 하회마을이 인상적이었으며 하회마을 소재로 한 많은 작품들이 있었지만단 쉽게 볼 수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청소년부문은 향후 한옥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미래 세대들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일반부문과 비교하여도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부문의 금상 수상작 "한옥은 우리들 이야기이다"는 현재의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음과 동시에 사진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독특한 작품이었습니다. 특별상은 '한옥문화의 첫 관문'은 서울의 도시공간 속에 위치한 경북 궁의 한옥의 관문을 통하여 어지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현대건축물 속에서 질서를 가지고 있는 한옥의 모습의 대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수상작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한옥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전시회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소개된바 있으나 이번 작품집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한옥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한옥사진은 사진매체가 가지는 우수성도 있지만, 사진을 통하여 한옥을 찾아가보고 자신만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한옥을 생각하는 계기로 확장 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한옥사진부문은 기본적으로 한옥을 대상으로 한 모든 사진이 응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을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한옥에 대한 생각으로 어떻게 한 장의 사진으로 담아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미처 그러한 생각을 잘 헤아리지 못하여 수상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응모한 작품들의 많은 수와 높은 수준 속에서 입상을 하신 수상작품 작가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이 시대의 다양한 한옥의 모습을 기록하는 작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장 박재영

프리랜서작가



상상
그 이상의
정신





청운문학도서관 淸雲文學圖書館

청운문학도서관

우리 구에서는 2011년 인왕산 공원에 윤동주 문학전시관과 연계되는 문학도서관을 건립하여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 속의 옛 성곽길과 자연환경에 어우러지는 한옥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한옥 체험의 기회와 독서의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했다.

경사진 대지의 특성을 활용하여 2개 층을 두되 최대한 자연환경을 거스르지 않는 디자인 개념을 도입했다. 지하 1층은 테라스하우스처럼 남측 전면이 열려 자연광이 유입되는 밝은 도서관을 만들고, 지상 1층은 전통한옥으로 건립하였다. 본체의 규모는 민간한옥에 비해 다소 크게 하여 공공건물의 격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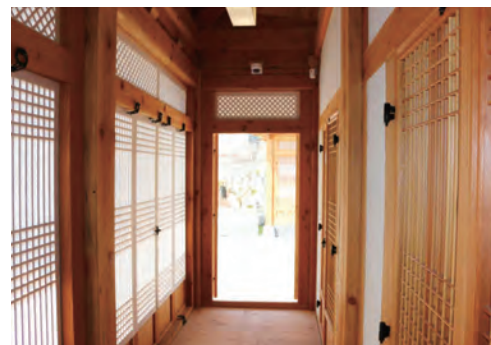
지상에는 본체, 연지와 정자, 그리고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동이 있고, 지하 1층의 상부는 한옥의 마당이 되었다. 한옥에 어울리는 앞마당을 만들고자 콘크리트 골조 상부에 흙을 깔되 하부에 배수설비를 만들어 흙이 빗물에 쓸리거나 질척거리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지하층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하수로 배출하지 않고 연지공급수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반영했다.

한옥의 지붕은 전통수제기와를 사용했다. 토룬기로 대량생산하는 현대식기와와는 색상이 너무 획일적이고 하중도 많이 나가는 데에 비하여 전통수제기와는 색감이 자연스럽고, 무게도 가벼워 목구조에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흡수율이 12~15%로 높아 동파 문제가 우려되었으나, 시험을 거쳐 전통기와의 내동해성이 현대식 공장기와보다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사라져 가는 전통기술의 맥을 잇는 점도 고려했다.

꽃담의 기와는 인근에서 재개발로 철거되는 한옥의 수제기와를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 문양은 건물에 비해 너무 화려하게 보이지 않도록 당초무늬와 와당 등을 조합한 기성제품으로 소박하게 직접 공무원이 디자인하였다. 옛 민가에서 흙과 와편 등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문양도 고려하였으나, 높은 비용 문제와 공공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벽돌에 어울리는 성과를 보였다.



도서관 전면



문예창작실 앞 텃마루



지상 한옥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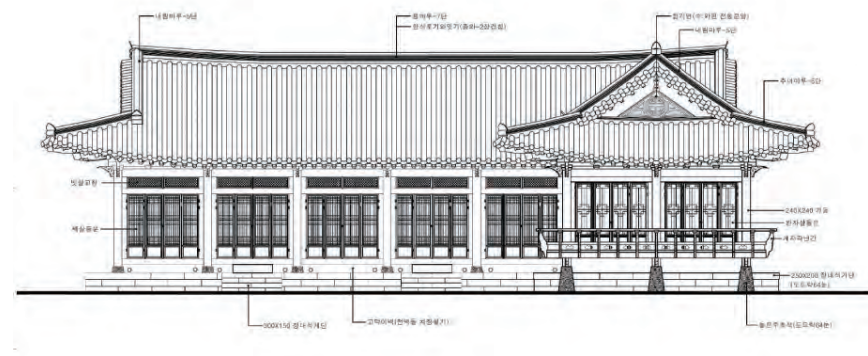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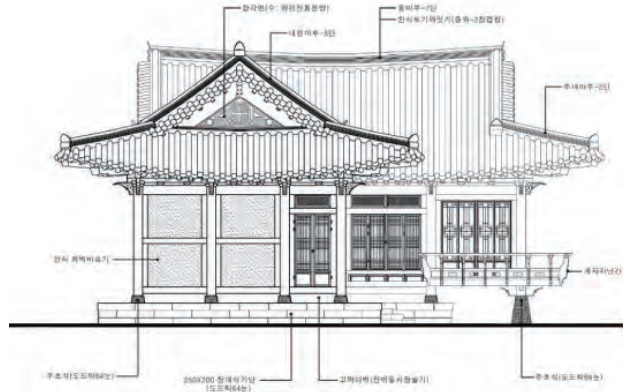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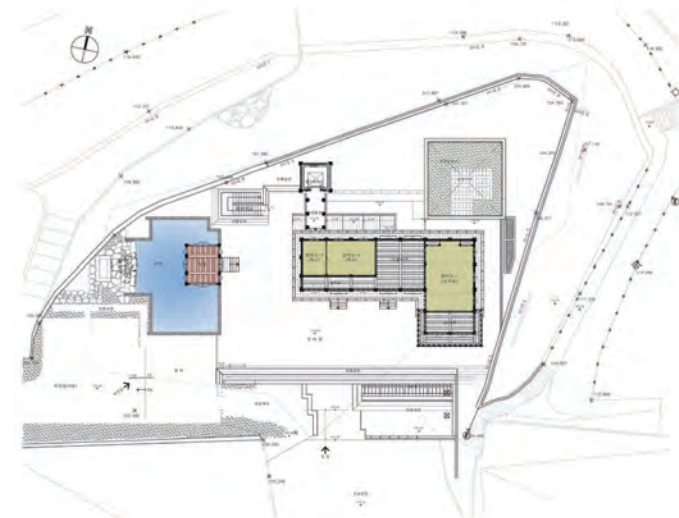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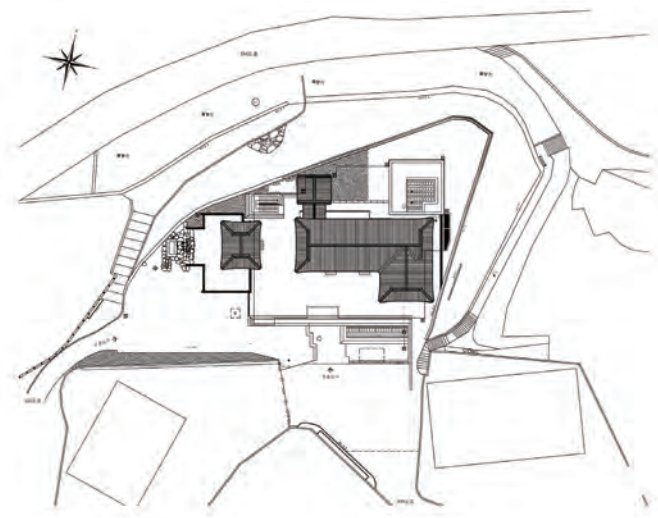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상

설계자 기획 : (주)사람과 문화
실시 : 오빌종합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주)서택건설

건축주 종로구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4-20
대지면적	1,238.5m ²
연면적	744.82m ²
용적률	16.3%
건폐율	12.75%
층수	지하1층, 지상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전통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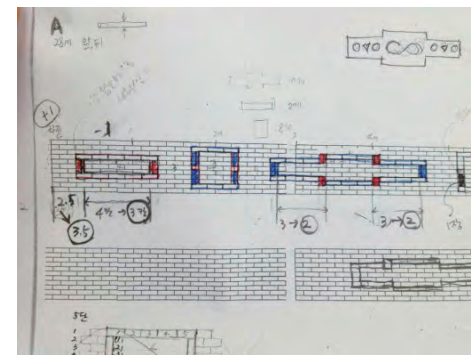
전통기와 제작

전통 수제기와를 관공서의 일반한옥 건물에 사용하기는 쉽지 않았다. 공장 KS기와가 아니고 일일이 수제작 으로 만들기 때문에 품질 확보가 최우선되었다. 두 차례 이상의 현장점검과 품질테스트 등을 거쳐 청운문화도서관 지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와가마 점검 (좌:가마 내부사진, 우:가마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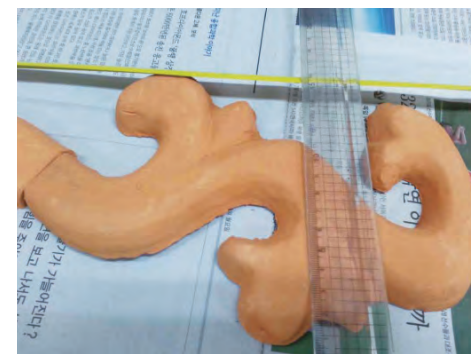


기와 제작과정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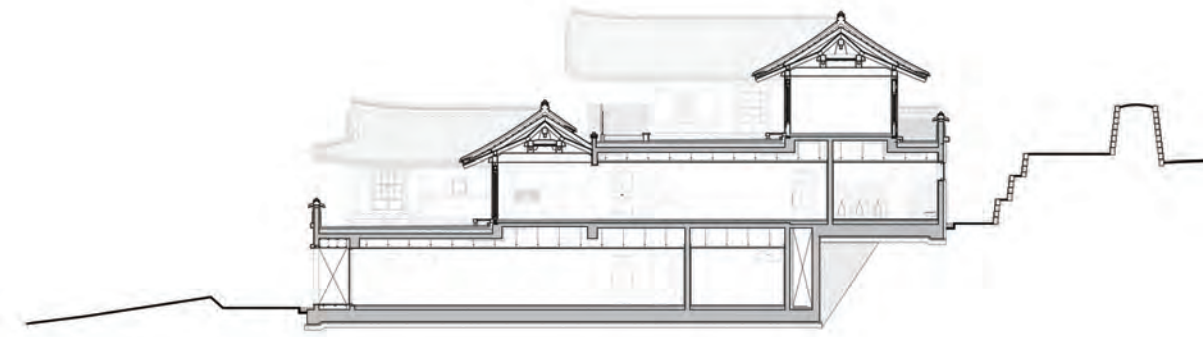
꽃담 설계

한옥 꽃담의 문양에 많이 쓰이는 십장생, 문자도안 등은 자칫 화려해보일 우려가 있어 청운문화도서관과 어울리지 않았다. 발주처에서는 당초무늬와 와당 기성제품을 확보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꽃담의 문양을 소박하게 풀어냈다.





홍천 어린이집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상

설계자 (주)금성종합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주)금성종합
건축사사무소

건축주 성북구청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천사길 29

지역지구 자연경관지구

대지면적 2,734.00m²

건축면적 320.94m²

연면적 591.86m²

건폐율 11.74%

용적률 13.72%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한식목구조

규모 지상2층, 지하 1층

주용도 노유자시설

입면 및 단면계획

어린이집을 한옥에 담으려 할 때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적당한 한옥의 크기와 비례, 그리고 공공어린이집 예산에 맞추기 위한 공사비 절감방안이었다. 어린이집의 큰 교실을 그대로 한옥에 담으려 하니 바로 옆 기존 한옥(손잡고 오르는 집)과의 조화도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 한옥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운치가 없었다. 나는 경사진 대지 위에 여러 채의 한옥이 균락을 이루며 채와 채 사이공간들은 마당이 되고, 실내와 외부가 하나로 연결되는 공간을 상상했다. 경사진 대지에 단단히 지붕이 중첩되어 보이는 작은 한옥마을. 단, 모든 집은 내부에서 연결되게 한다는 것이 설계의 출발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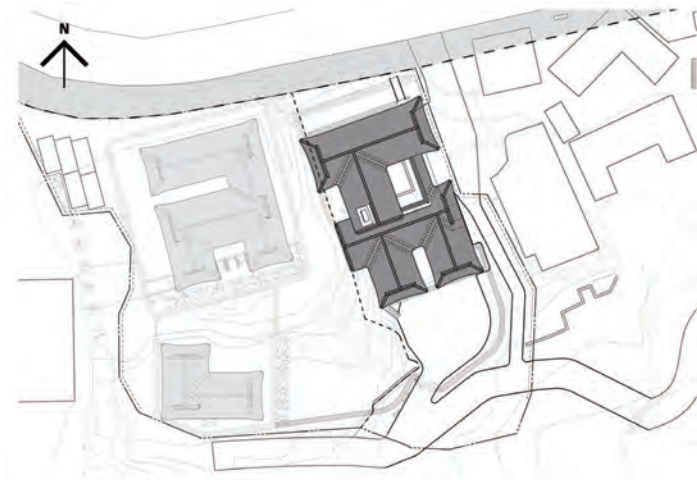


배치계획

서울 성북구 돈암동, 높은 성냥갑 아파트단지가 산을 갉아먹다 멈춰선 자리에 신정왕후 정릉의 능침사찰, 흥천사가 있다.

흥천 어린이집은 흥천사 끝자락에 위치한다. 도시화로 원지형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우뚝 선 너럭바위와 건너편 숲이 그곳이 옛날 풍광이 아름다운 계곡이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대지는 숲과 마주한 좁고 긴 경사대지인데 여기에 90명 정원의 한옥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 성북구의 요구조건이었다.



평면 계획

6m의 고저차가 있는 경사진 대지를 따라 두 단의 콘크리트 매스를 올려 두 개층 넓은 테라스를 만든 다음 그 위에 한옥을 두 단 올리면, 세 개층의 실내공간이 만들어진다. 첫 층 콘크리트 매스는 법적으로는 지하층이나 길에서 보면 1층으로서 규모가 큰 놀이실과 주방을 담고, 두 번째 층은 법적 1층으로서 1,2세 교실(한옥)과 3,4세 교실(콘크리트)을 담았다. 그리고 세 번째 층에는 5세 교실을 한옥으로 배치했다. 또한 외부마당도 3개층에 걸쳐 층마다 특색을 달리해 만들었다. 첫 층 놀이실 앞마당에는 전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두었고, 지상층의 한옥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당은, 2층은 1,2세를 위한 놀이공간으로, 3층은 5세 어린이 전용 뒷밭마당으로 쓰이도록 했다. 이때 가장 신경을 쓴 점은 이 집이 절대 3층 한옥으로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과 콘크리트 매스부분을 한옥과 담장으로 가려서 전체가 일관되게 한옥으로 보이도록 한 것이었다.



한옥의 실험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것은 공사비 문제였다. 전체면적 중 콘크리트부분의 비중을 높이고 한옥을 불과 33%로 줄여서 공사비를 줄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공비가 많이 초과되었다.

한옥을 현대공법으로 하여 단가를 많이 줄이긴 했지만 단열과 기밀성을 높이고 한옥 내진구조 때문에 전통한옥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다. 시공비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한옥에 관습적으로 남아있는 의장 요소들 즉, 기능적으로 없어도 되는 것을 찾아서 과감히 없애는 것이 필요했다. 대표적인 것이 기단과 초석이었는데 시공 후 한옥이 기단과 초석이 없어도 그리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상



김천 학이재 金泉 學而齋

김천 학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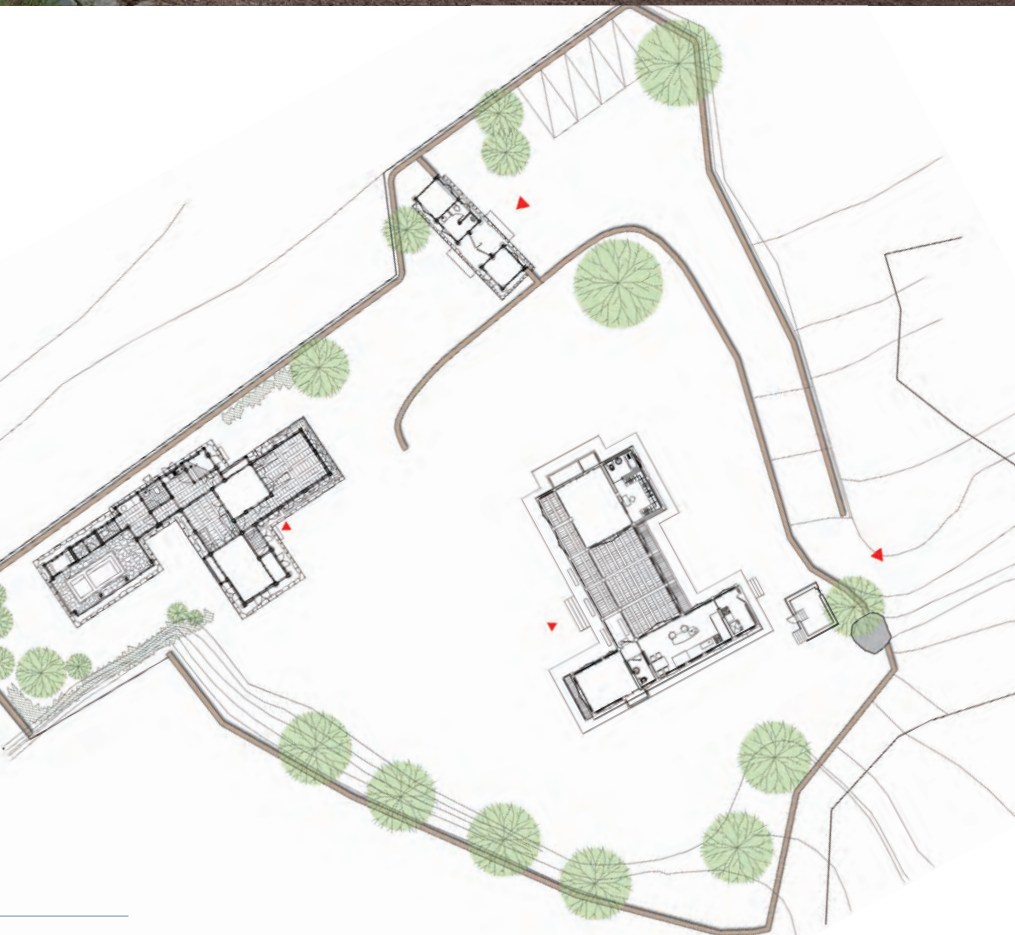
김천 학이재는 금오산을 배경으로, 마을 가운데 봉긋이 오른 대지에 자리한 집이다. 주민들이 해마다 제를 지내던 팽나무가 단단한 바위를 끼고 넓은 가치를 펼쳐 집의 초입을 지키고 있다. 2010년 건축주는 가족이 살 안채를 지어놓고 우리를 찾아왔다. 손님들이 놀러와 모임을 할 수 있는 소박한 사랑채를 지어달라고 했다. 무엇보다 '여럿이 같이 목욕할 공간'을 부탁한다고 했다. 한옥을 설계하며 건축가로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제안해왔지만, 건축주에게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참 신선하고 인상적이었다.

처음에는 사랑채와 목욕채 사이에 마당을 두고, 회랑으로 잇는 구성을 계획하였다. 건축주도 좋아했지만, 나중에 현장을 여러 차례 돌아보니 주변의 경관, 특히 금오산의 풍경을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목욕탕에 몸을 지긋이 담그고 웅장하게 펼쳐진 금오산 배바위의 전경을 사람들이 즐기는 상상을 하며 다시 계획한 것이 지금의 안이다.

사랑채와 더불어 문간채도 계획하였다. 경사로를 따라 올라 약간 넓은 마당을 두고, 4칸의 솥을대문을 배치하였다. 대문을 지나면 기다란 마당 끝에 사랑채 누마루가 보인다. 다가가 그 앞에서 발길을 돌려 몇 단을 오르면 넓은 마당이 나오고, 시야가 트이며 금오산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사랑채는 마치 '집계'처럼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목욕채를 두고, 큰 마당에 ㄱ자 모양으로 몸을 내밀어 안채와 대각선으로 마주한다. 안채와 사랑채를 가까이 두어 친밀하게 짜인 마당도 생각 하였지만, 주변의 산세와 풍경을 담으며 다양한 작업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원한 마당'을 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대청과 마루 그리고 목욕하는 공간을 한 쪽에 놓고, 다른 쪽에 이것을 지원하는 '서비스 공간'들을 나란히 놓는 기능적인 배치를 하였다. 더불어 이들 다락과 주방, 탈의실, 화장실 등을 '여유 있고 친밀한 스케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기능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다르지 않은 따스하고 검박한 전통건축의 공간들을 떠올리며 만들어 보았다. 한편, 설계과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캐드와 스케치업)으로 구현한 공간과 단면을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공간을 파악하며, 마감과 디테일을 다루는 표현법을 시도해 보았다. 오늘날의 한옥에 있어, 한옥건축의 설계영역을 확장하여 현대건축과 공유할 기반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설계자 안채 : 이재호
(송정한옥 대표),
보승건축사사무소
사랑채 : 조정구
(구가도시건축 대표)

시공자 송정한옥, 남곡건설(주)

건축주 백락광

대지위치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오봉리 196-3
외 3필지

대지면적 3,065m²

건축면적 313.54m²

건물면적 안채 161.23m²
사랑채 128.55m²
(목욕채 포함)
문간채 23.76m²

연면적 313.54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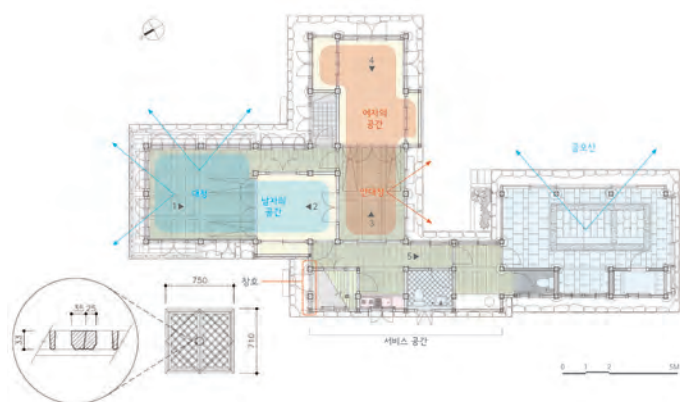
구조 한식목구조

규모 지상 1층

용도 단독주택

착공 2009. 5

준공 201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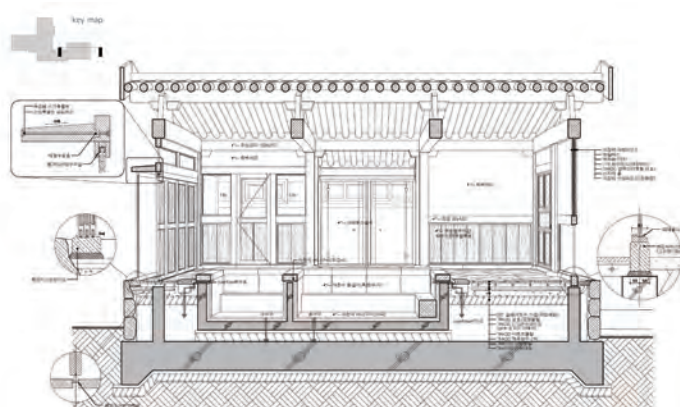
사랑채

옛날 사랑채가 남자만의 사회활동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학이재의 사랑채 일신당은 남녀 공간의 균형을 맞추어 계획하였다. 모두 마루와 방 하나씩을 가지고 있지만, 남자는 대청이 앞으로 가고 안으로 방이 있는 모양으로, 여자는 밖으로 방을 내밀어 밝게 하고, 안으로 내밀한 안대청을 두었다. 공동으로 미니키친과 화장실이 연결되고, 여기서 안으로 더 가면 탈의실과 화장실이 있는 목욕채로 이어진다. 보일러실 위에 작은 다락을 두었는데, 싱크대 옆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조그만 창들을 안팎에 두고 위를 열어, 작고 색다른 공간을 만들어 보았다. 특히 밖으로 열리는 두 짝 여닫이문은, 서로 만나는 가운데 울거미두꺼비를 줄여, 언뜻 보면 하나의 창으로 보이게 공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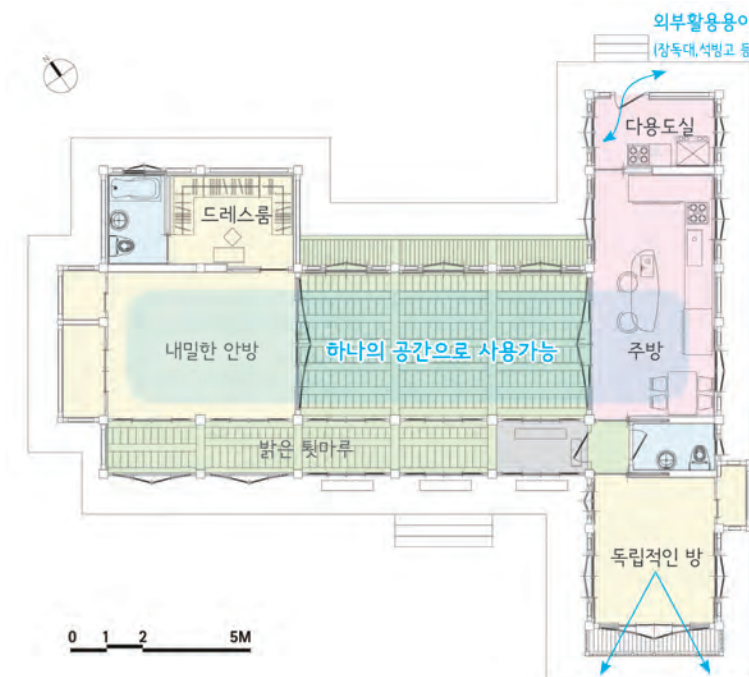
안채

안채는 전통의 방식 그대로 지어졌다. 현대건축이 많이 섞인 요즘의 한옥에 실증을 느끼고 제대로된 전통한옥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건축주와 대목장에 의해 설계되고, 전통방식으로의 시공을 통해 전통한옥을 구현하려 하였다. 후대에는 문화재 등록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보존하고자 옛날 방식 그대로 견고하게 지으려고 하였다. 남향의 한옥은 3칸의 넓은 대청을 두고, 한쪽으로 드레스룸과 욕실이 딸린 안방을, 건너편엔 넓은 주방과 다용도실을 계획하였다. 지금까지 1000여명이 다녀간 학이재의 대문은 항상 열려있다. 안방과 주방의 여섯짝 불발기문은 들문으로 계획하여 때에 따라 하나의 넓은 접객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목욕채

사랑채에 이어진 목욕채는 주변 지형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당 가운데 놓았다. 시선이 차단되어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목욕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금오산의 전경 뿐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산세와 풍경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면과 측면 모두 나무로 짠 복층유리의 미닫이문을 두어, 문을 열어놓고 계절의 기운을 느끼며 입욕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시스템 창호로 대체되고, 사이 담장을 비롯한 주변담장이 완결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주변이 한적하고 반사유리와 내부 창호등으로 차단하여 쓰고 있어 무리는 없어 보였다.



상상
그 이상의
일기



사진부문

- 일반인

대상



고즈넉함 속으로

제출자 이성우
촬영장소 서울 남산 한옥마을

특별상



하회마을 전경

제출자 윤신애
촬영장소 경북 안동 하회마을

금 상



자연을 담은 한옥

제출자 강봉관
촬영장소 경남 하동 최참판댁

은상

비오던 날

제출자 임지연
촬영장소 전북 전주 경기전



몽환의 유선각

제출자 윤상준
촬영장소 전남 목포 유선각



동상

몽심재의 다락방

제출자 박종권
촬영장소 전북 남원 몽심재



가족과 함께

제출자 김용준
촬영장소 경기 광주 남한산성 행궁



입선



낙안읍성

제출자 우정순
 촬영장소 전남 순천 낙안읍성

조가와 단청의 미

제출자 최중현
 촬영장소 전남 순천 낙안읍성



심

제출자 이현자
 촬영장소 경북 안동 병산서원

초가마을의 겨울

제출자 반선순
 촬영장소 전북 정읍 내장사



입 선



선과 면의 조화

제출자 오관진
촬영장소 전남 구례 화엄사

설원 속의 한옥

제출자 이상일
촬영장소 전남 지리산 암자



처마 끝에서

제출자 정재영
촬영장소 전북 정읍 내장사

열린 공간

제출자 조금주
촬영장소 경북 안동 도산서원



입 선



기국정의 겨울

제출자 정갑식
 촬영장소 기국정의 겨울

여름밤 한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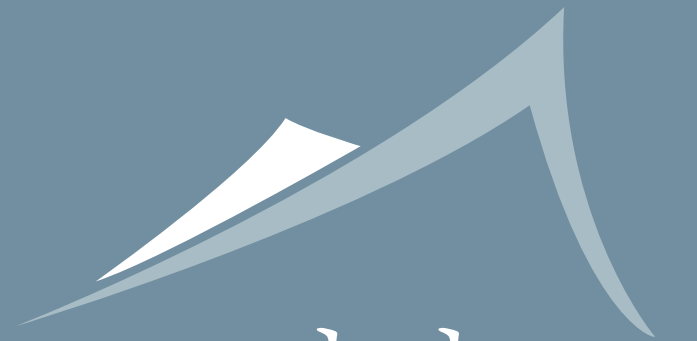
제출자 김해인
 촬영장소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



정든 고향집

제출자 선우철호
 촬영장소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

상상
그 이상의
정신



사진부문

- 청소년

특별상



한국문화의 첫 관문

제출자 김응기
촬영장소 서울 경복궁

금상



한옥은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제출자 신형길
 촬영장소 서울 종로구 화동 '라면 땀기는 날'

은상

숲속의 보물

제출자 안혜미
촬영장소 서울 원서동
고희동가옥



고희동의 뜰

제출자 배우나
촬영장소 전남 장흥 우드랜드

동상

한옥의 멋

제출자 지세희
촬영장소 경북 김천 청암사



한옥의 창문

제출자 김세진
촬영장소 강릉 선교장

입 선



숨은 이야기

제출자 박소희
촬영장소 서울 북촌

숨겨진 한옥

제출자 이재민
촬영장소 서울 창덕궁



원서동 가옥

제출자 이현나
촬영장소 서울 종로구 원서동 9-8번지

한옥은 어르신이다

제출자 정현지
촬영장소 서울 경복궁



입선



세월을 아날로그로 기록하다

제출자 이지은
촬영장소 서울 창경궁

눈 내리는 날

제출자 지행희
촬영장소 강릉 허난설헌 생가



Jongmyo

제출자 이승용
촬영장소 서울 종묘 정전

고요의 미

제출자 박성민
촬영장소 경북 영주 부석사





상상
그 이상의
꿈



계획부문



계획부문 대상

서촌의 지역문화

도시락 카페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지닌 통인시장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이 일대는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현재 서촌에 살고 있는 예술인과 주민들의 지역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점을 참고삼아, 이 일대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서촌의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건축적 제안

먼저 대상지에 있는 건물들 중에 심하게 노후화 된 한옥과 한옥이 아닌 양옥주택들을 제거하였다. 그렇게 형성된 빈 부지와 기존한옥의 레이어에 길과 마당공간(벚꽃마당, 체험마당 등)을 형성하였다. 길은 기존에 있던 골목길을 연장, 조합하여 구성하였고, 마당공간은 여러 건물이 공유하고 있는 공적인 마당공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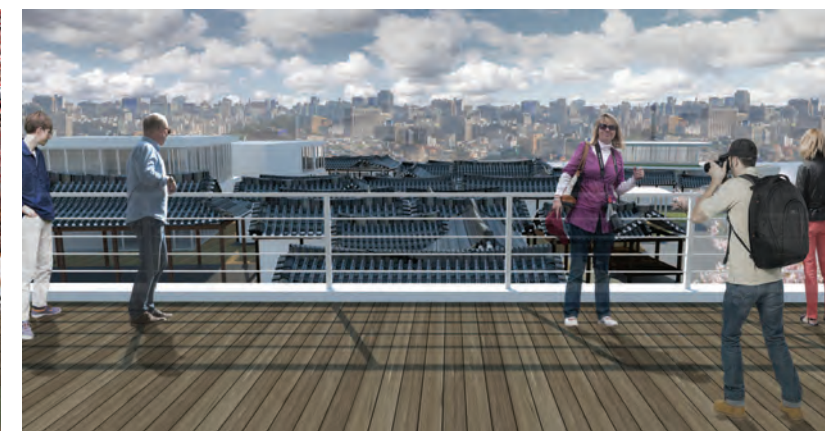
기존에 있던 한옥들은 공방이나, 게스트하우스, 카페, 레스토랑 등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한옥이 수용하지 못하는 큰 규모의 공간이나 중층 구조들은 현대식 철골구조의 건물이 대신한다. 현대식 철골구조의 건물은 한옥의 기둥간격, 처마선의 깊이를 어느 정도 따라 한옥들과 대치하며 조화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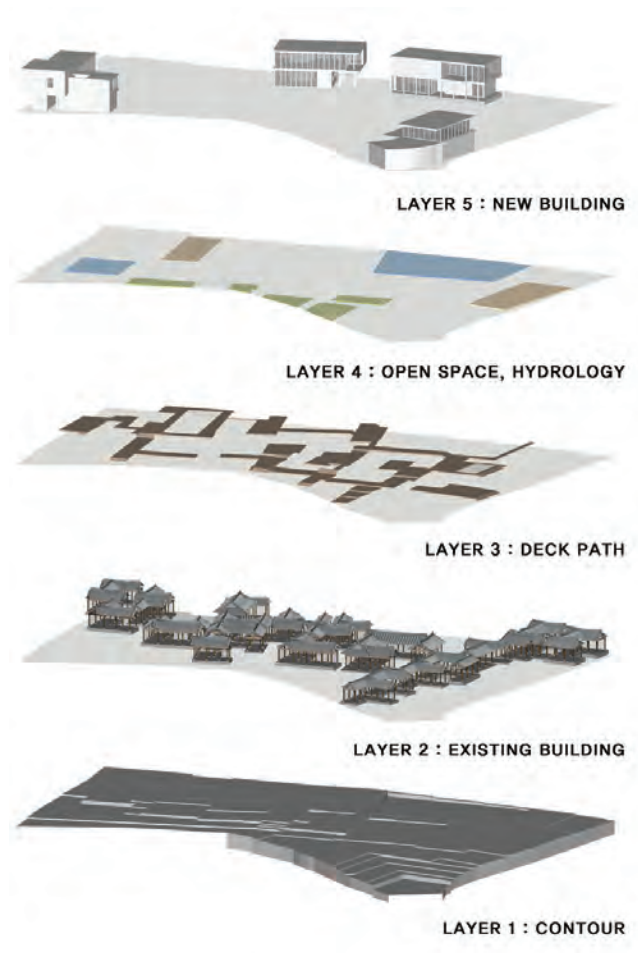
서촌의 뛰어난 풍경

서촌은 예로부터 인왕산, 옥류천등의 뛰어난 자연풍경속에서 이름 있는 예술가들이 살던 지역이었다. 이 동네는 청와대 근처에 위치하게 되면서 시간이 멈춘 듯이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한옥, 골목길 등이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층고가 높지 않아 조금만 층고를 올라가면 멀리 보이는 산과,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형성되고, 밀집된 한옥의 지붕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도시한옥의 풍경을 담다

고려대학교
예재관





프로그램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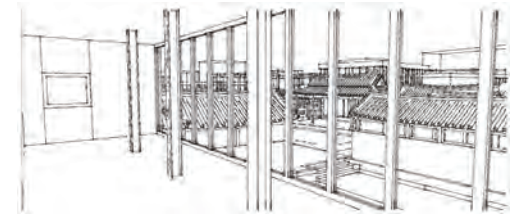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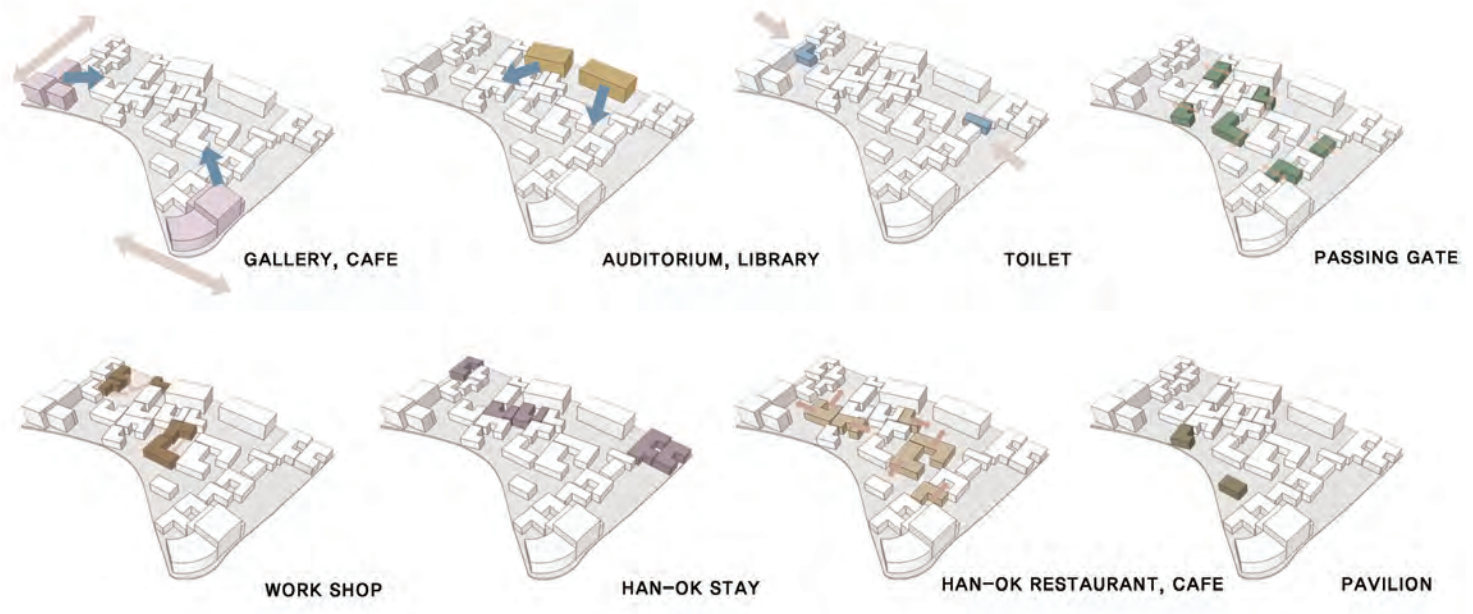
진망 도시락카페
 현재 도시락카페에 부족한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2층짜리 건물로 구성하였다.

다목적강당, 도서관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좀 더 프라이빗한 공간에 배치하였다.

화장실
 통인동 전반적으로 부족한 시설로, 양쪽 입구쪽의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구성하였다.

Passing Gate
 일부 한옥은 벽체를 떼어내어 통과동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하였다.

공방, 게스트하우스, 레스토랑, 한옥스테이
 한옥들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체험공간으로 탈바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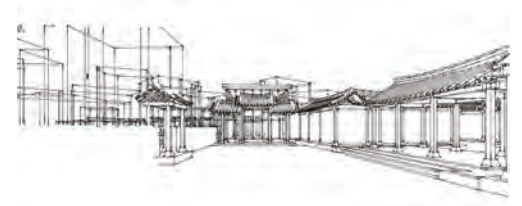
도시락 전망 카페

통인시장에서 많은 수요에 비해 공간이 협소한 도시락카페를 반대편 공간에 확장하였다. 식사는 1층에서 수공간을 보며 즐기거나, 2층에서 한옥지붕들을 감상하면서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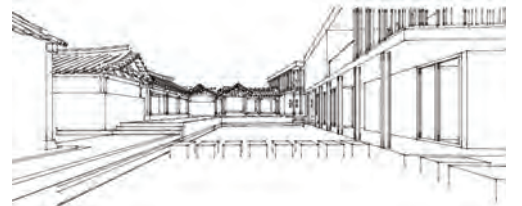
벚꽃마당

통인시장에서 진입하는 길과, 지하문로에서 진입하는 길의 굽어진 공간을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여 관광객,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였다. 벚꽃나무에 있는 벤치나 정자, 파빌리온에서 꽃놀이를 즐기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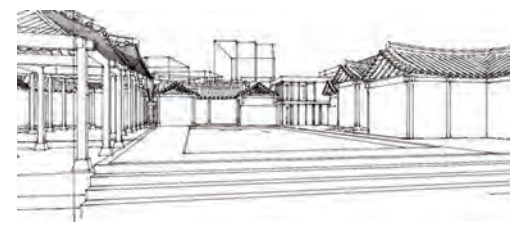
갤러리+카페

지하문로의 진입로쪽의 공간을 활용하여 갤러리와 카페로 구성하였다. 기존에 있던 한옥공간을 새로운 매스와 연결시켜 중정을 가진 갤러리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2층에서는 카페에서 외부 전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실 수 있다.



수공간

사람들은 마을을 거닐다 수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수공간에 투영되는 모던한 건물과 한옥의 조화를 느낀다. 수공간 주변에는 레스토랑이나 카페등이 구성되어 사람들은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외부의 수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체험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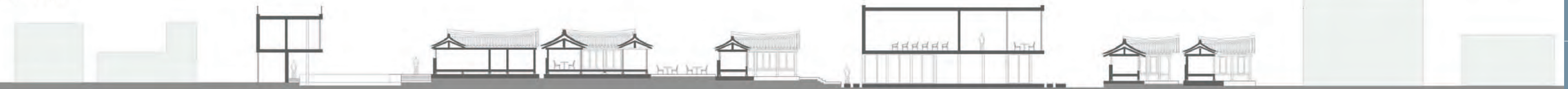
공방들 사이에 자리잡은 체험마당은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의 여러체험을 유도하는 공간이다. 전통놀이 체험, 서촌의 지역문화 체험, 수공예제품 만들기 등의 공방체험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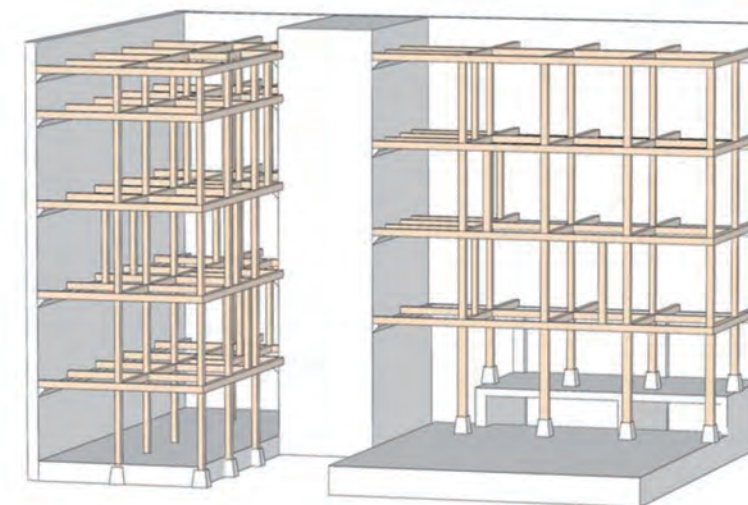
입구마당

지하문로에서 진입하는 공간쪽에 생긴 오픈스페이스를 '통인한옥마을'의 입구로 활용하였다. 솟을대문으로 대문을 구성하고 쪽문을 활용해 ENTRANCE 공간을 구성하였다.

SECTION



계획부문 특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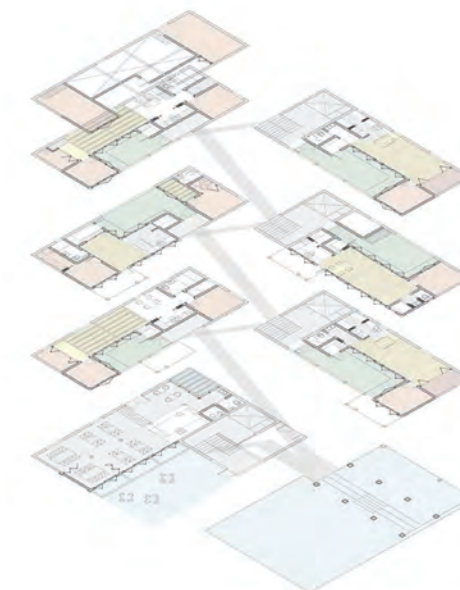


구조

전통의 목조가구식 기법은 자연소재가 갖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현대의 재료인 콘크리트 구조와 조합함으로써 구조적인 한계를 확장시키고 단열, 차음 등 의 기능을 보완하였다. 서측 6M도로와 북측의 4M 도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한 본 건물은 두개의 볼륨이 콘크리트 코어에 의해 연결되는 스킵플로어의 가구식 중목구조를 취하고 있다.

공간구성

기본적으로 전통적 'ㄱ'자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에 공적 외부공간인 모두의 마당을 갖는다. 그리고 주차문제의 해결과 마당의 형성을 위한 반 지하 주차장은 자연스럽게 'ㄱ'자의 양 날개를 반 층씩 엇갈리게 한다. 이는 상가를 위한 마당과 주민을 위한 마당을 자연스럽게 분리시킨다. 모두의 마당을 지나 내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적인 외부공간인 내 마당이 나온다. 여기서 반 층씩 어긋난 윗집 아랫집 이웃과 눈높이를 맞추며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는다. 신발을 벗고 올라 들어가면서 나오는 전이공간인 마루(거실)는 각 방들, 공용공간, 내 마당과 연결되는 공간이다. 그리고 사적인 공간인 방으로 연결된다. 모든 공간은 내부의 큰 마당을 향해 열려 있고 각 세대 간 적당한 눈높이의 교류는 보다 자연스럽게 풍부한 공간을 구성한다.



더불어 사는 집

WITH-IN ARCHITECTS (Beijing) ARCHITECT 이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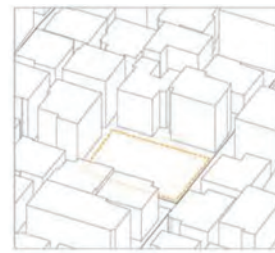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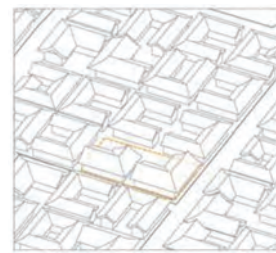
WITH-IN ARCHITECTS (Beijing) ARCHITECT 조명선

프로그램

우리의 도시는 짧은 시간에 수직적 성장과 확장을 하였으며 현재 우리의 인구밀도, 건축법규, 생활방식등 한국인의 삶을 담기 위해 근린생활 시설과 다세대 주택이라는 보편적인 건축유형이 생겨났다. 현재의 보편적 건축유형인 근린생활 시설과 다세대 주택을 한옥의 공간언어로 재구성 해봄으로써 한옥이 앞으로 우리의 보편적 주거양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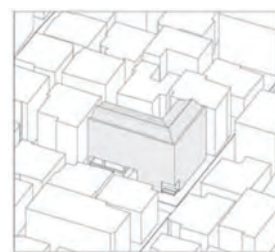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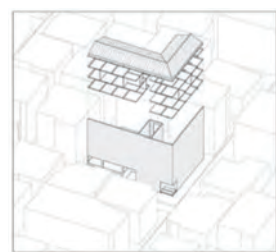
사이트

본 건물은 4층의 다세대 주택들과 신축빌라가 혼재하여 밀집되어 있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주변의 수직적으로 쌓아올려진 다세대 주택들 가운데서 한옥은 주변의 현대 건물들과 어우러지기 어렵다. 골목길의 풍경에 주변의 현대건물들과의 어울림을 통해 한옥이 소외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기존의 도시적 맥락과 연속성을 지니고 새로운 관계를 성립해 갈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는 한옥의 기와를 닮은 색과 재료의 진한 회색 벽돌, 내부적으로는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한옥의 가치를 담고자 하였다.



과거

현재



공존 그리고 상생

더불어 살아가기

단면도



계획부문 금상

숨쉬는 도시형 생활한옥 계획안

청주대학교
정유라
신예진
곽유정
신소민

여태까지의 한옥은 상상의 것 이었다!

현대인들은 저마다 한옥이라는 이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점들, 예를 들면 물과 불을 사용하는 공간의 불편함, 더위와 추위에 적응하는 어려움 때문에 콘크리트더미 안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콘크리트에서 벗어나 더 이상 상상의 존재가 아닌 실재의 모습을 한 한옥에서 생활할 수는 없는 것인가? 즉, 상상 이상의 한옥은 곧 현대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한옥이다.

중부 내륙지방의 역사적 도시인 청주시내에는 한옥 주거지가 많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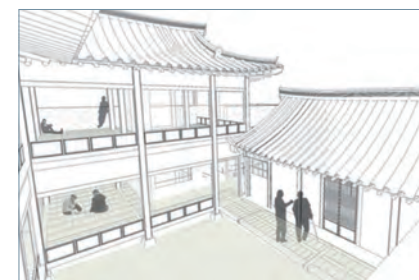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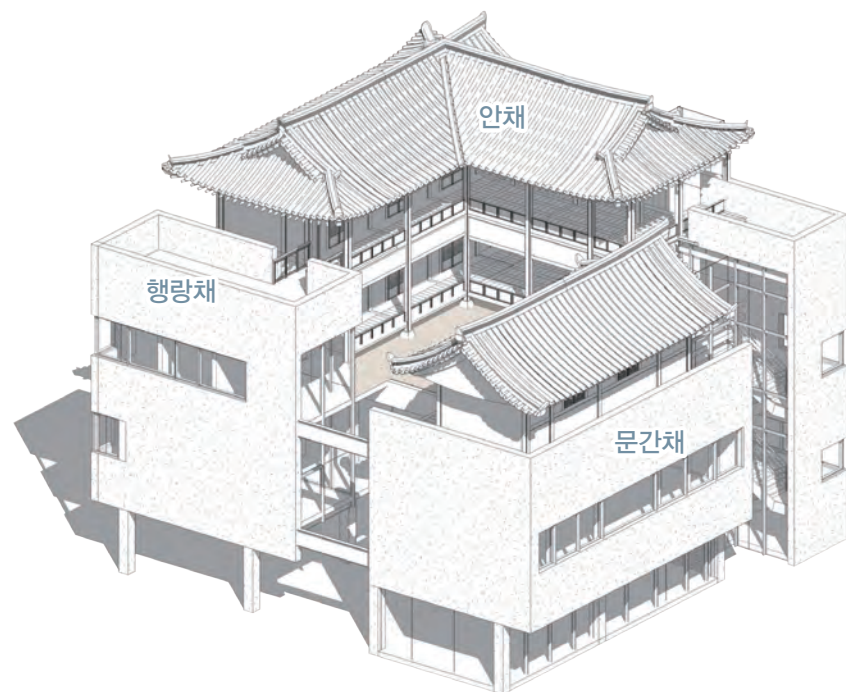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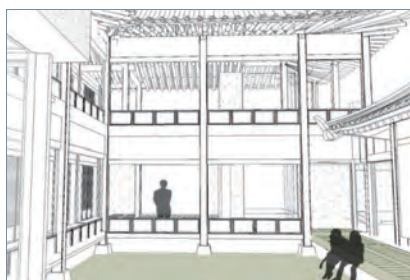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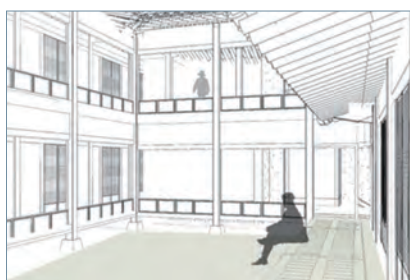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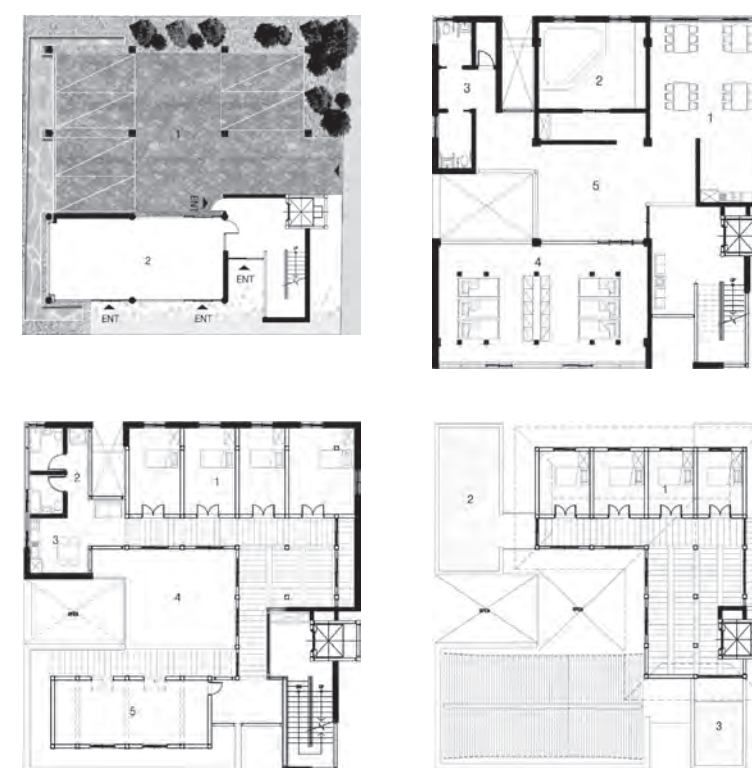
그중에서도 서운동 진달래길 일대에는 1930년대 청주읍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지금까지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본 계획안의 대상지는 이곳 서운동 진달래길 초입에 면한 35-3번지 한옥이다. 도로변에 면하여 있을 뿐 아니라 곧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지 주변으로 4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립되고 있기 때문이다.(한옥의 대지규모가 300㎡ 내외인 관계로)

여기에 착안하여 본 계획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발의 전제 하에 기존의 RC조 틀 속에 목구조 한옥이 지닌 중정, 열림과 트임의 기능적 공간, 가구형식, 의장 등의 성격을 조합, 혹은 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에서와 같이 1층 주차장과 상점, 2층 업무시설(데이케어센터)을 두었으며, 3-4층의 거주공간을 이용하여 한옥을 앉혔다. 기지형 안채를 중심으로 문간채, 행랑채로 이루어져 있는 기존의 중정 배치를 최대한 고수하면서, 2층의 안채와 1층의 문간채와 행랑채(RC조)의 배치로 다양한 공간체험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사면과 매 층마다 열고 트인 보이드, 테라스, 발코니, 중정 및 옥상공간을 두어 일조와 환기를 원활하게 하였다.

RC조와 목구조의 모듈은 가능한 한옥의 척(尺)을 기준으로 채용하였으며, 구조와 재료에 있어서 재료 간 상호분리와 분절을 통하여 상호 이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외견상으로는 한옥의 형태와 의장적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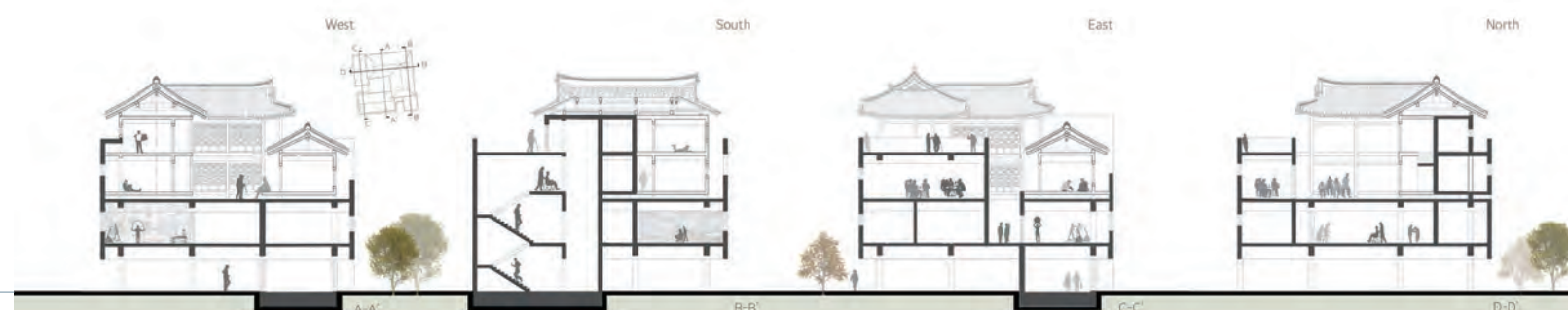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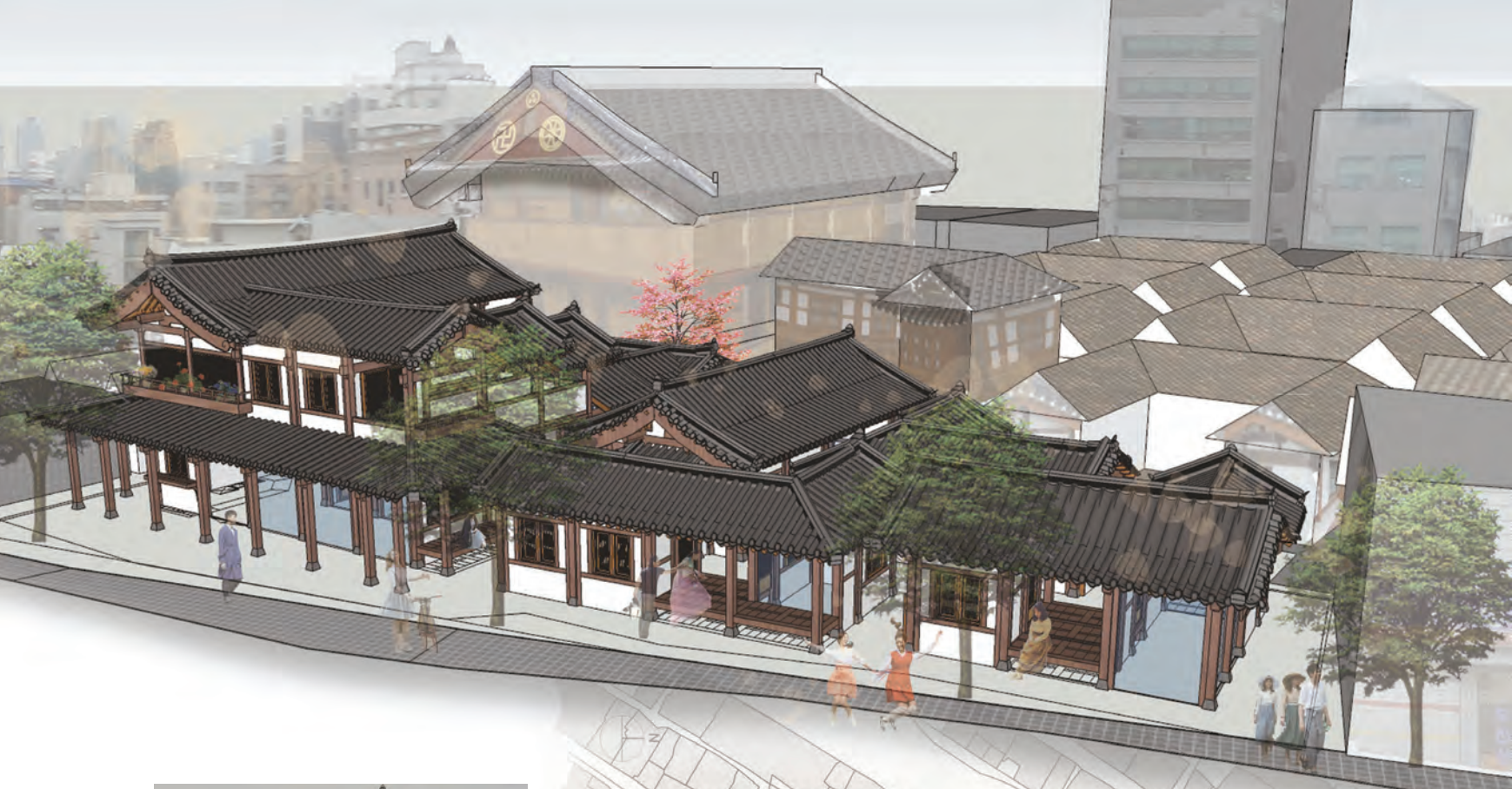


입면도



단면도





경관을 해치는 대각사의 스케일감을 완화
인접 건물에 대해 한 걸음 물러선 배려. 좁은 골목을 생각해
주변에 회랑과 같이 차양을 둘러 주변 상가 건물도 여유가
생긴 골목에 대해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켜켜이 유리 입면을 통한 시선의 연장. 곳곳에 배치된 마루
공간은 서순라길을 지나는 행인들의 시선을 골목 깊숙히
끌어들인다. 더불어 유리 입면을 통한 시선의 연장은
사람들이 골목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골목 활성화를 통한 순라길변 소통의 회복

과거의 한옥은 우리 삶의 터전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그렇지 못하다. 과거에 꽃 피웠던 무성한 나무에서 떨어진 현대 한옥의 씨앗은 땅 속에 숨어 싹을 틔우지 못하듯, 지금은 구석진 곳에서만 숨어있다.

내가 살려본 권농동 일대의 한옥들이 그러했다. 서순라길과 돈화문로 사이에 위치하면서도 길 변으로 나설지 못하고 안쪽에서 남아가고 있었다. 마치 연고 없는 독거노인처럼 쓸쓸해 보였다.

그래서 이 한옥들을 길의 전면부로 끌어내고자 하였다.

한옥이라는 씨앗이 양지에서 다시 피어나도록 해야 했다. 낡은 도시형 한옥이라 별 볼일 없고 자그마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멋이 살아나는 것은 복존, 서촌에서 본 바 있다. 서순라길 일대를 '걷기 좋은 길'로 만든다는 돈화문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가라앉아 있는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부여했다.

한옥 디자인 스튜디오와 한복 대여점 그리고 카페를 프로그램으로 하여,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관광객들이 가볍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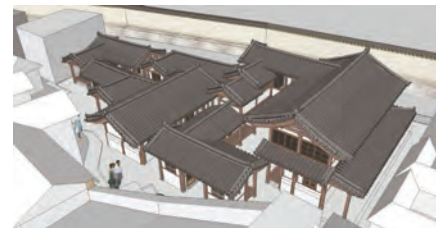
유리 입면을 사용하여 디자이너들의 쇼 윈도우로 활용함과 동시에, 건물 곳곳에 대청과 쪽마루와 더불어 사람들이 편히 머물 수 있고, 그 비어있는 공간이 좁은 골목 깊숙이 시선을 끌어들이길 수 있도록 하였다.

시선의 연장은 궁금중으로 이어지고 발걸음이 골목 안쪽으로 기존 한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일대 전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의도했다.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은 주변과의 관계이다. 큰 건축인 '종묘'에 대해 한 단계 자세를 낮춰 맞배지붕만을 이용해 구성하고 기존하는 도시형 한옥의 형태와 골목을 그대로 길의 전면부로 끌어왔다. 카페 건물에서 차양 공간을 두어 좁은 골목을 확장하고 마주본 인접 건물들 또한 적극적인 태도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무늬만 한옥인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대각사'의 압도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면부에 2층 한옥을 위치시켜 시각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골목이 주는 호기심. 넓은 길의 해방감과 달리 좁은 골목길의 군집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게 만든다. 발걸음은 기존하는 한옥들 까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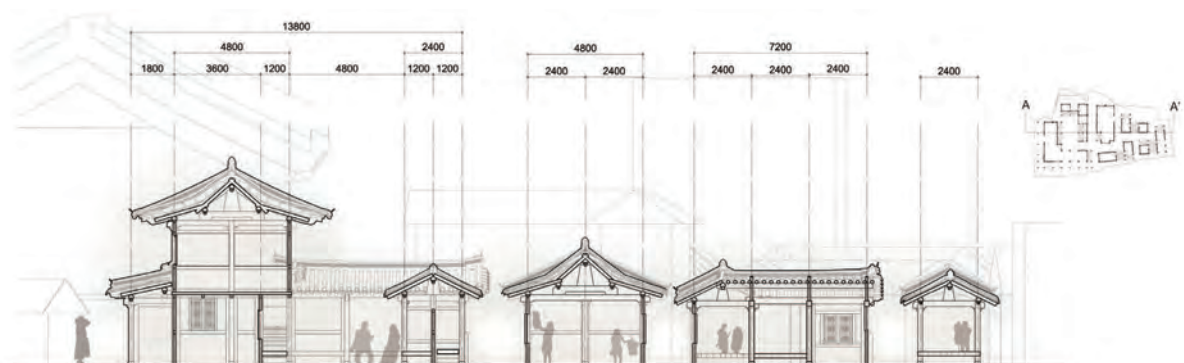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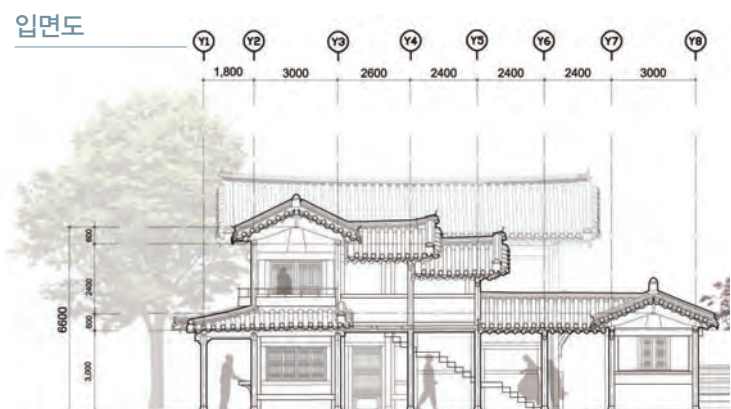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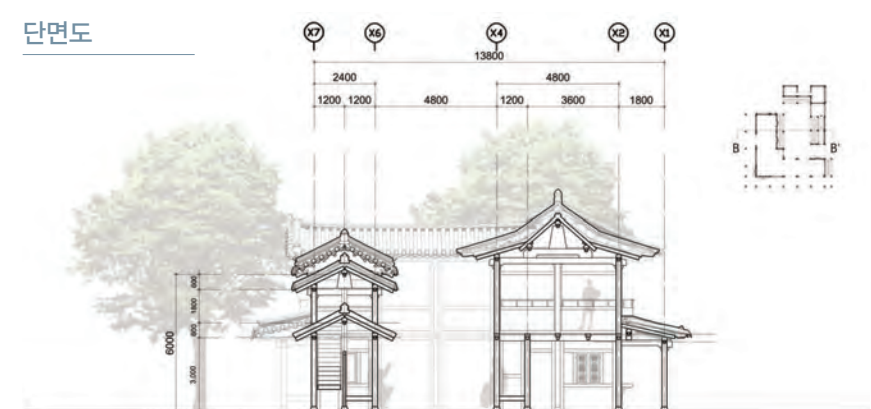


중첩되어 쌓인 맞배 지붕의 아름다움. 큰 건축인 종묘에 대해 한 단계 낮춘 겸손으로 팔작지붕을 사용하지 않았다. 더불어 기존의 한옥들이 맞배 지붕만을 사용했기에, 그 질서에 스며들고자 하였다.

계획부문 은상

서순라 할아버지,
인상피고
웃어봐요!

명지대학교
조영경
김현성





계획부문 은상

삶을 담아내는 공간

이번 프로젝트의 대상은 완주군의 작은 시골마을에 있다. 초가삼간은 부엌-안방-옷방으로 구성되어있어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최소 규모의 공간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극히 좁고 낮은 공간이 서민들에게 포근한 안식처이며 그들의 삶을 담고 있었다.

전통적인 한옥들이 자리하던 도시 근교의 시골마을은 근대화를 거치면서 개성 있는 전원주택들이 채워지면서 마을의 경관이 크게 변해버렸다. 예전의 작은 한옥이 현대인의 주생활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한옥은 낮고, 좁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초가삼간을 살리면서 다시 삶을 담아내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초가삼간의 기존 공간을 유지하면서 증축을 계획하였다. 초가삼간이 담고 있는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기존의 한옥 배치에 부가적으로 새로운 증축부는 대지의 축을 따르게 배치하였다.

대지 여건상 증축부가 기존 초가삼간을 덮으면서 중첩이 일어나지만 기존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초가삼간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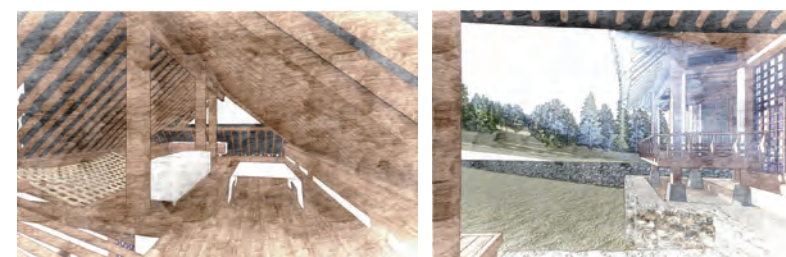
수평, 수직 증축하여 야외에 다양한 공간을 계획하였다. 누마루는 전통건축의 공간으로 자연경관을 즐기고 실을 확장하는 등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작은 뒷마당인 썬큰을 이용하여 하나의 작은 경관을 가지면서 대지 밖과 소통의 공간으로 발전한다. 또한 수평 증축의 한계를 수직 공간의 확장으로 보완하여 현대인의 생활에 맞는 충분한 실과 면적을 확보하였다.

수평 증축과 수직의 공간들은 서로가 이어지면서 전통건축의 채 나눔을 닮는다. 각 실에 마루와 마당이 존재하게 되고 이는 채 나눔과 같이 전통건축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로 표현된다.

현대인의 생활에 맞추기 위해서는 전통건축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지붕재료로 전통기와가 아닌 동기와를 사용하면 경제적이며, 지붕 중량이 가볍고 내구성이 좋다. 3량 구조를 사용하여 지붕아래 다락에 생긴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건식 벽체를 사용하여 기존 흙벽에 비해 내구성과 단열성을 강화하였다.



평면도



구조 프로세스



1. 기존 초가삼간의 구조

2. 기존 구조에 증축부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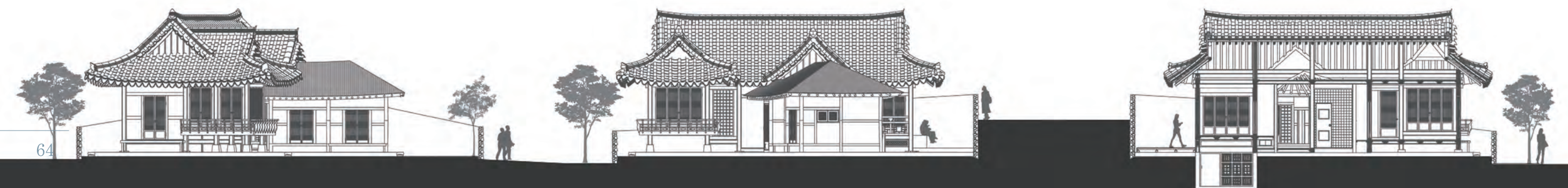
3. 다락 공간 활용을 위한 기존 한옥의 구조 변경

4. 기존 구조와 증축부 지붕의 연결 팔작지붕과 우진각지붕의 조화 (구례 운조루 참조)

Fron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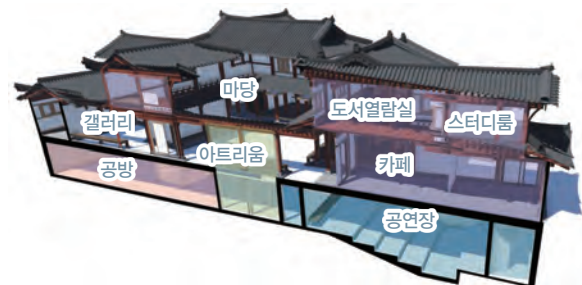
Right View

A-A' Section



초가삼간 더하기

원광대학교
한규현
전재호
강성재



복합 문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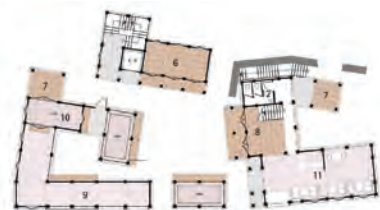
서로 연계되어 작용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사람, 건축이 연결된다.

길과 지역이 중심점이 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성화된다.



지하 1층 평면도

- 13. 공방 및 연습실
- 14. 실내 공연장 및 영상실
- 15. 창고
- 16. 화장실



1층 평면도

- 6. 대청마루
- 7. 이웃마루
- 8. 휴식마루
- 9. 문화갤러리
- 10. 공예품 판매관
- 11. 카페
- 12. 화장실(여)



2층 평면도

- 1. 연습실
- 2. 스튜디오
- 3. 마루 휴식공간
- 4. 북카페
- 5. 세미나실

입면도



골목, 연결되다

언젠가부터 한옥은 우리와 동떨어졌다.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현대의 폐쇄적 형태의 도시한옥은 이웃들과 자유로운 소통을 단절시키고 공동체적인 교감 대신에 사적영역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이런 도시한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바로 골목길이다.

골목길은 사람들의 시간의 앨범과 같아서 우리는 골목길에서 이웃의 얼굴을 마주하고 낙서, 열록, 전단지, 게시판 등의 흔적을 통해 그들과 소통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골목길에 삶의 모습을 남기며 일 방향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골목길의 연장선이자 중심인 공간에 소규모 문화시설과 마당을 두어 일방향이 아닌 통합적인 소셜 커뮤니티를 유도하며 주변 이웃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웃들 간의 삶이 이어지도록 한다.

또한 기존 도시한옥의 스케일을 유지하고 담의 공간화를 통해 골목길을 형성하여, 건물의 분절과 동선의 다양함으로 각 건물 마다 연결성을 높인다. 그리고 이웃에는 없던 공공의 휴식마루공간을 제공하여 이웃과의 소통을 가지려하였다.

대상지는 종묘 옆 서순라길에 위치한 장소로서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전통문화거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침체되어있지만 앞으로는 사라지는 도시한옥 상황 속에서 한옥문화거점시설로서 순라길의 활성화와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지역 도시의 밀집 도는 높아진 반면에 공공시설의 부족과 도시한옥의 폐쇄적인 공간 구성으로 주변과 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도심의 열린 한옥 체험공간의 부족과 폐쇄성으로 인해 도시한옥의 점유도 또한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 음악, 예술 및 지구행사 등의 그룹별 공간을 제공해주어 모임장소의 부족함을 해결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취미 생활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동시에 도심지의 새로운 한옥의 형태로서 밀집적이지만 시선이 열린 새로운 구조를 제시한다.

계획부문 동상

골목길을
따라 걷다.

명지대학교
서준형
권연아
민나는

계획부문 동상



사이공간을 통한 회복

청소년들에게 '한옥을 떠올려 보라'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미디어 매체에서 접하는 사극 속의 한옥을 떠올릴 것이다.

우리 한옥의 입지는 사회가 급속하게 발달하면서부터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보존'을 하는 상황까지 닥쳤다. 우리가 주거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한옥과 양옥의 교차점 혹은 조화점을 찾으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결국 이제는 기억의 한옥이라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 한옥'으로 변해버렸다. 노력해서 찾지 않으면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화점을 찾으려고 시도했고,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실존에 의한 한옥'을 선물하고 싶었다. 실질적으로 한옥의 거주 문화가 사라져 그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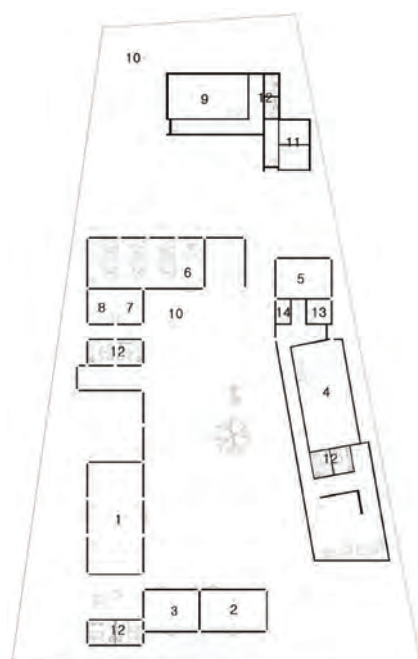
사잇재는 경복궁, 덕수궁과 같이 한옥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청소년 시설과 융합하여 한옥 문화의 가치와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전통적 공간의 정체성을 몸으로 체득하게 한다.

그저 한옥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현대 양식과 한옥의 교차점을 찾아 조화를 이루는 해석을 했고, 그것이 우리의 상상 이상의 한옥, 한옥을 재해석 하는 방식이 되었다.

정동은 일제 강점기 시절을 거치면서 많은 대사관과 이국적인 건축물이 세워졌고, 그 이전에는 경희궁과 덕수궁이 자리 잡고 있어 한옥의 흐름을 간직하고 있던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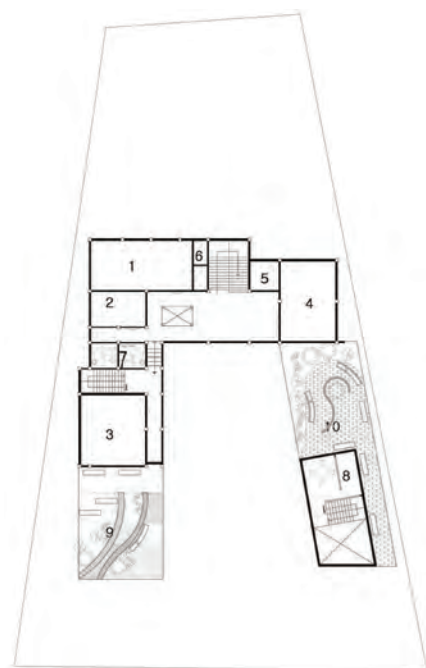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 그 공간에는 궁과 궁 사이가 현대 건축물에 파묻혀 버리면서 이어지던 컨텍스트가 소실되었고, 건축물 사이사이에도 질서 없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잇재를 계획했다.

사이공간은 혼재되어 끊어져 버린 맥락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답답한 오피스 건축물 사이의 긴장감을 극적으로 해소시킨다. 두 건축 양식의 조화로운 궁과 오피스 건축물의 이질감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정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다.



1층 평면도

1. 체력단련실
2. 문화예절실
3. 동아리실
4. 북카페
5. 상담실
6. 관리사무실
7. 안내
8. 양호실
9. 댄스연습실
10. 정자
11. 노래연습실
12. 화장실
13. 심리치료실
14. 베란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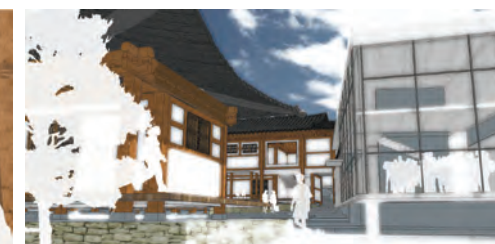
1. 강의실
2. 동아리실
3. 탁구실
4. 미디어실
5. 창고
6. 준비실
7. 화장실
8. 매점
9. 공중누각
10. 응시누각

사잇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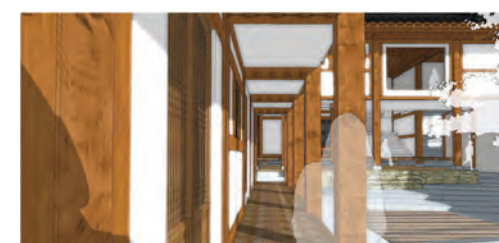
강남대학교
방은지
홍진표



수직적 공간의 확장



한옥적 흐름의 회복



기둥과 기둥 사이

평면에 대한 이야기

사잇재에 스며든 사이공간은 경희궁-사잇재-덕수궁의 한옥적 흐름을 연결하고, 현대식 건축물과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주변을 아우르는 건축적 관계성을 회복시킨다.



1층 단면도

1. 카페
2. 음식점
3. 기획/디자인 상가
4. 다이어리, 판출물 상가
5. 인쇄공업_제판
6. 인쇄공업_인쇄,가공
7. 화장실



2층 단면도

1. 카페
2. 음식점
3. 기획/디자인 상가
4. 문화사, 다이어리
5. 인쇄공업_제판
6. 인쇄공업_인쇄,가공
7. 화장실



3층 단면도

1. 인쇄공업_제판
2. 인쇄공업_인쇄,가공
3. 화장실
4. 옥상정원

단면도



입면도



상상 그 이상의 한옥, 한옥은 '관계 맺기의 장'이다

한옥의 공간 속에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풍경이 담겨있고, 서로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다.

한옥의 무한한 가능성은 바로 이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다.

한옥은 현대의 삶에 부족한 관계 맺기의 공간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관계의 공간'들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옥 속 '관계의 공간'을 재해석한 **韓공간**(한옥의 공간, 그들의 삶이 서로 관계 맺는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韓공간을 실현하기 위한 대상지는 충무로의 '인쇄골목'이다.

과거 우리나라 인쇄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메카였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1970년대 이전 건물로 재정비계획이 진행 중이다.

인쇄골목은 특유의 공업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주변과의 연계성은 떨어져서 이 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장벽처럼 늘어진 인쇄골목에 쉽게 다가서지 못한다.

韓공간은 대상지의 벽을 허물고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풍경을 실현해 줄 것이다.

디자인 과정은 우선, 현재 대지의 프로그램 면적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밀도를 유지해 볼륨을 계획한다.

두 번째로, 대상지에 접한 골목에서 안쪽으로 상업에서 공업으로 이어지는 경험의 커를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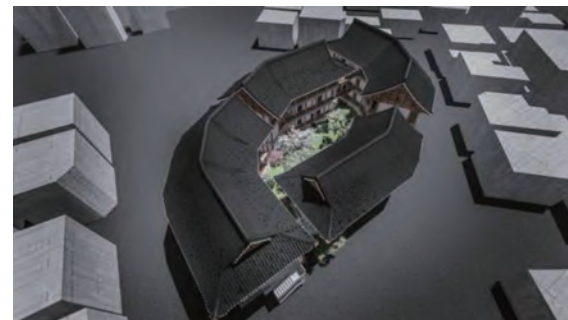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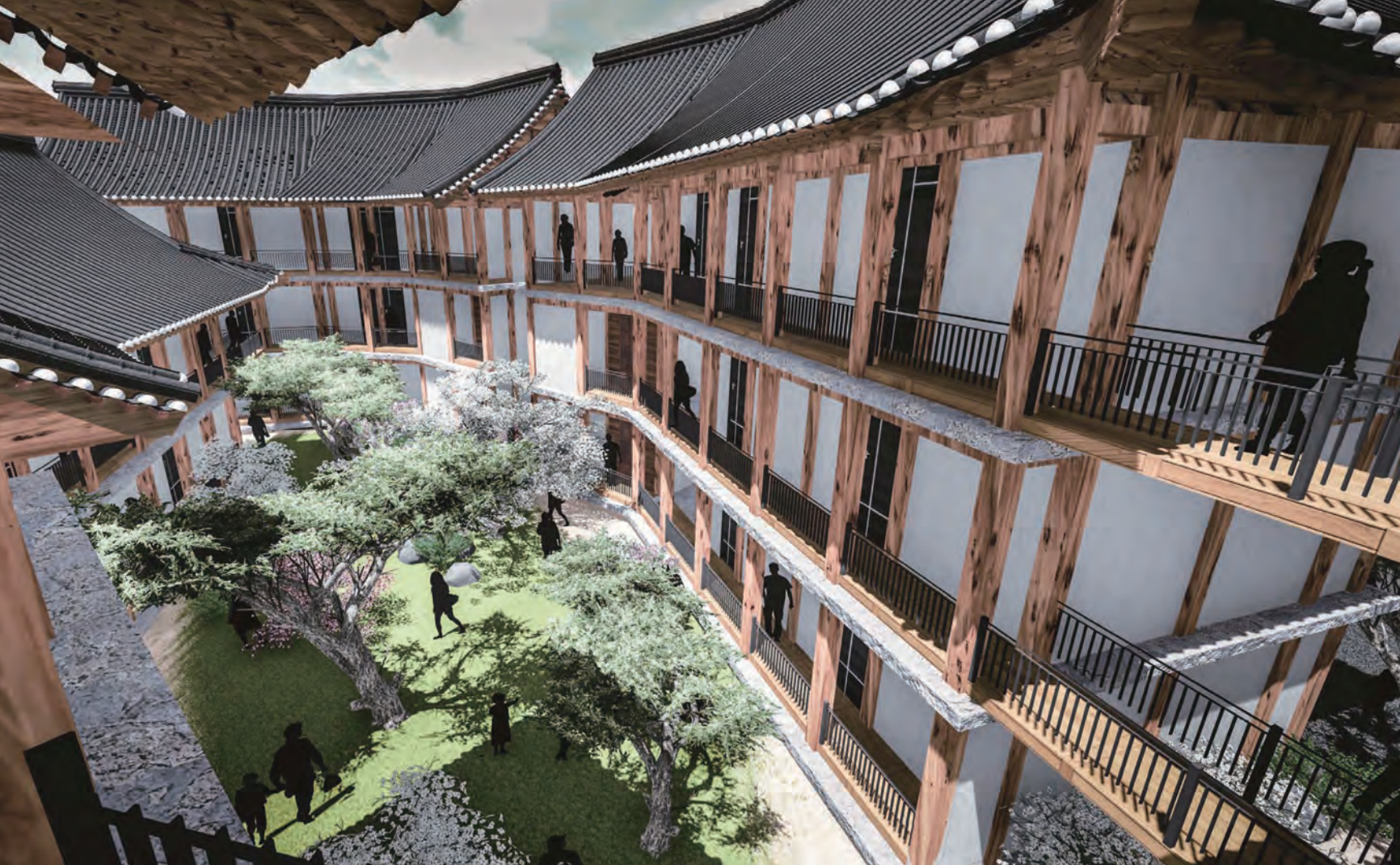
다음으로, 대상지인 인쇄골목에서 나타나는 주된 4가지의 관계를 적용한 韓공간을 유형화하여 배치한다. 4가지의 韓공간은 방문객과 인쇄골목이 관계 맺는 공간, 인쇄공업과 관련업 사이의 관계로 인해 생겨나는 공간, 인쇄업의 제판-인쇄-가공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공간, 기존의 인쇄업에 새롭게 상업이 추가되어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무거운 인쇄기계의 하중과 화재를 고려하여 공업이 배치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구조로 디자인하고 그 외의 부분은 한옥의 목구조와 재료의 특성을 살려서 디자인해 나간다.

계획부문 동상

멈추었다 그곳에; 韓 공간

세종대학교
박현우
배명현
김정환
강준민



계획부문 입선

커넥터 한옥 대학생 기숙사

계명대학교
이재신
김민구
김용수

새마을운동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단독주택이 아닌 집단거주가 가능한 다중이용 건축물이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한옥을 보면 ㄱ, ㄴ, ㄷ, ㄹ 등 형태에서의 변화폭이 적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한옥이 부재와 부재가 결구되는 방식으로 지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한옥은 형태의 폭이 넓지 못하여 대부분의 건물이 직각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우 대지경계에 따라 한옥 건축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지방 쪽 무게로 인하여 하중을 많이 받아 목조의 특성상 건축물의 고층화가 불리하며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도 결구 부분의 수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 시공비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이러한 문제를 커넥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형태의 자유와 건물의 고층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목재의 결구부분에 부착이 가능한 가상의 커넥터를 삽입하여 결구작업 부분을 줄이고, 볼트접합을 하여 하중에 강하고 결구의 곡선화가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더 안정이 되면서 그동안의 집에 다른 재료를 사용하거나, 없어서도 될 부분에 장식적인 요소를 더할 수 있게 되었다.

ISSUE

서울에 소재한 54개 대학 중 18개 대학 기숙사 수용률 10%이하이며 기숙사가 없는 대학 또한 3개가 있다. 54개 대학의 학생 수는 26만 9000여명이며 이들 중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은 전체의 절반가량인 14만명이다. 이중 12%만 기숙사에 살며 이중 80% 지방 학생들은 비싼 보증금과 월세에도 학교근처 하숙집이나 원룸에서 기거하고 있다.

PROGRAM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 기숙사 사업을 대구에서도 적용

대구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의 환승 구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대구 어디든 갈 수 있는 구역에 자리하고 있다. 커넥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한옥의 대형화를 하여 실을 증가 시켰고 대구 북구 근대화골목 과 연계하여 주변 관광객 유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대학생들의 기숙사를 위치하여 주변 노년층 인구 분포가 많은 지역에 대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지역 사회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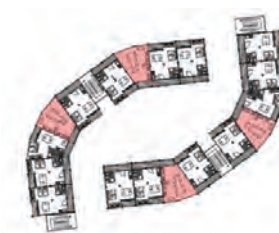
서울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고흥군 등 8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서울 내발산동 공공 기숙사를 건립하였다. 모집 대상은 수도권 소재 전문대이상 재학생이며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고흥소재 고등학교 졸업생을 우선 입주시킬 계획이다.

입면도



단면도



1층

공공시설 : 식당
방 : 14개의 방 2인 1실



2층

공공시설 : 독서실, 휴게실, PC실, 헬스장
방 : 13개의 방 2인 1실



3층

공공시설 : 휴게실, 대청
방 : 10개의 방 2인 1실

계획부문 입선

도시를 품은 네 개의 채

동양미래대학교
한주희
지우희
왕지희



디자인 컨셉

'경의선 신촌역 복합문화시설'은 한옥건축을 통해 철도 관광산업, 주변의 고등교육시설, 종합의료시설, 상업시설이 통합되는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를 연결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부지를 관통하는 '보행통로'를 남북으로 확장하여 신촌이대거리-경의선 신촌역-성산로(연세의료원, 이화여대)를 연결한다. 분절된 도시를 다시 연결하고 주변의 방문객을 모두 유도한다. 새로 조성되는 복합문화시설은 동일한 모듈이 반복되는 네 개의 채로 구성하고 전통과 현대, 상업과 문화를 함께 적용한다.

- 전통관은 안마당과 앞마당을 갖는 ㄷ자형 정통한옥으로 조성하고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형 한옥공간을 구성하기 위하여 한 변 12m의 모듈을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적용하였다.
- 현대관은 현대건축으로 조성하여 용적률을 확보하였고, 지붕에는 한옥 누각을 계획하여 신촌역 복합문화시설이 변모시킨 도시공간을 조망하게 한다.
- 주차장은 192대의 지상주차로 구성되었으며, 방문차량을 감당한다.
- 전시관은 현재 관광안내소로 활용되는 구 신촌역 규모를 확대하여 복합문화시설의 하나로 연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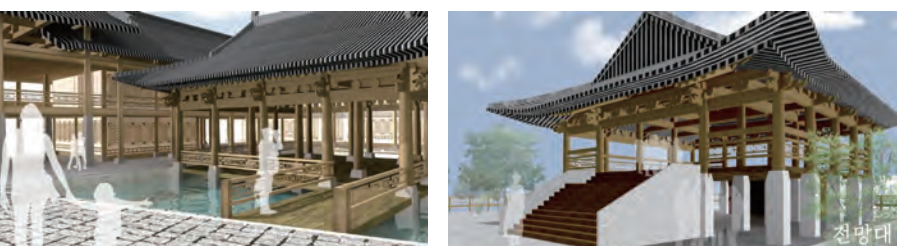


대지분석

경의선 신촌역 부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74)는 서울 도심의 주요 대학시설과 상업지구가 맞닿아 있다. 그러나 경의선 철도시설은 도시를 남북으로 분리하였으며, 2006년에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며 조성된 대형 쇼핑몰의 경제성은 오히려 기존 상권보다도 침체되었다. 또한, 한국 근대 교통시설로 가치가 있는 '구 신촌역'은 '신 신촌역'의 부속시설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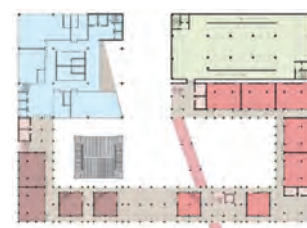
기대효과

거대한 도시, 대규모 건축에서 한옥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옥의 안마당은 도시를 품는 공공의 광장이 되고, 한옥의 구조방식은 모듈 시스템을 매개체로 현대건축과 통일성을 형성한다. 그리고 한옥의 장소성은 지역사회에서 전통을 즐기는 놀이터가 된다. 오래된 건축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시도는 경의선 신촌역 복합문화시설이 계획한 목적이자 기대이다.



1층 평면도

1. 메인홀
2. 전통의상체험관
3. 스튜디오
4. 보관함
5. 매표창구
6. 안내소
7. 편의시설
8. 전통문화체험관
9. 창고
10. 전통 가무
11. 주차장
12. 정자
13. 안내소
14. 직원사무실
15. 전시실
16.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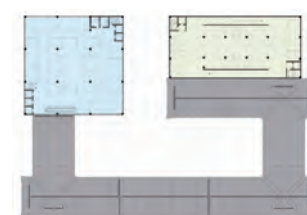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 음식점
2. CAFE&PUB
3. CAFE
4. 음식점
5. 요리체험교실
6. 공방상점
7. 서예공방
8. 목재공방
9. 약세사리공방
10. 종이공방
11. 소통루
12. 주차장



3층 평면도

1. 회의실
2. 사무실
3. 회의실
4. 관리실
5. 예절교육관
6. 역사박물관
7. 도서관
8. 소통루
9. 주차장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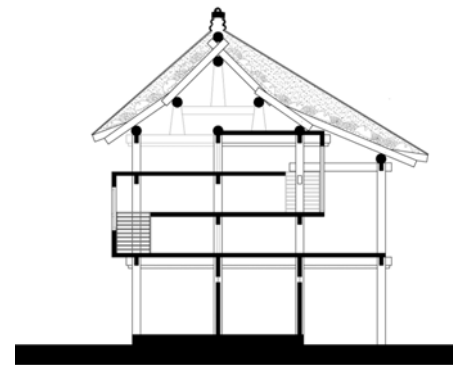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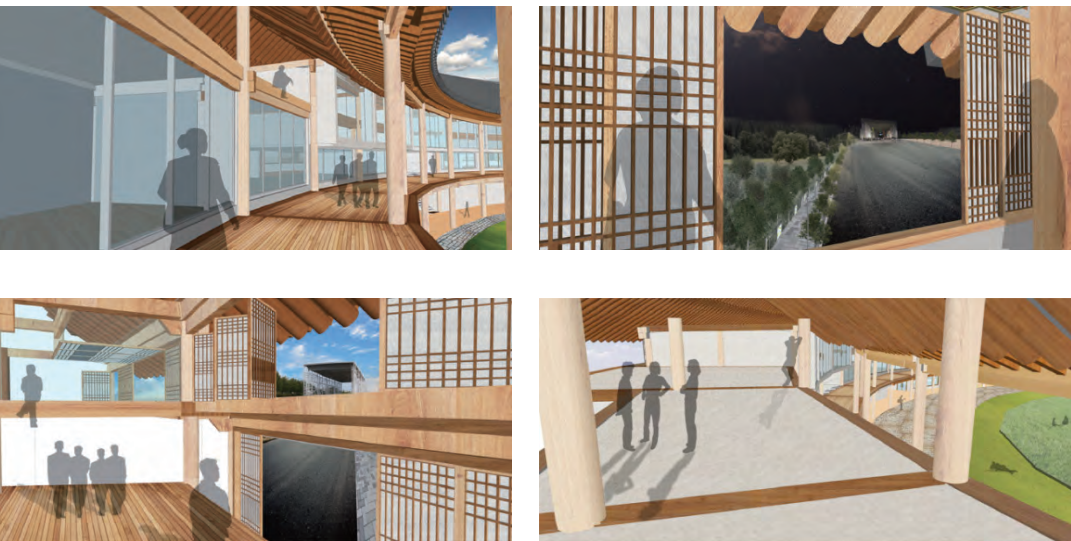
1. 게스트하우스
2. 주차장



7층 평면도

1. 전망대
2. 주차장





겹처마의 구조화

서까래가 비대칭인 반육량 구조이며 한번 각도를 틀어 시각적으로 마당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겹처마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조화하였다.

도시-사람-자연을 이어주는 한옥은 이음매

현대인들은 무한 경쟁이 반복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현대 사회 속에서는 건물들 또한 무한경쟁을 통해 지어지고 무너진다.

더 화려하고, 더 실용적이고, 더 편리한 건물을 원한다. 이와 같은 경쟁 속에서 한옥은 뒤쳐지고,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멀어져 상상 속으로 남겨져버렸다. 더불어 현대인의 삶을 보면 하루하루 바쁘게만 흘러가는 일상과 여유 없이 뻑뻑하게 건물이 들어선 도심 속에서 쉽게 지쳐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짧은 휴일에 쉴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며, 우리의 삶에 여유와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한옥은 보존해야할 문화재가 아닌, 새롭게 우리의 삶에 녹아드는 건축으로 재탄생 시켜야 한다. 한옥을 현대인의 삶에 맞게 새로운 정의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도 다가가 더 이상 상상속의 한옥이 아닌, 현대인의 삶에 어울리는 기능을 하고, 가까이 있는 한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우린 현대인의 삶과 인접한 공공시설에서 찾았다.

현재 대전시의 한밭 수목원과 무빙쉘터 대전 엑스포 다리 사이에 이루어진 대전시의 시민광장은 대전 시민 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광장이다. 하지만, 넓은 공간으로만 이루어진 광장은 현대인의 삶에 여유와 활력을 불어넣기엔 부족하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대지에 두 개의 얼굴을 가진 한옥이 과거한옥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친숙하게 자리를 잡는다. 마당과 마주 보는 얼굴은 현대적인 얼굴을 한다. 창을 통해 마당과 건물이 소통하고 테라스를 통하여, 마당과 건물이 한걸음 가까워지도록 한다.

또한, 뒷마당 개념의 수목원에 마주보는 얼굴은 자연을 향해 전통한옥 얼굴을 한다. 한옥의 얼굴을 띄며, 분합문을 통하여 자연의 시원한 공기가 불어 들어와 소중한 우리의 쉼터가 되어준다.

프로그램은 재능 기부 센터와 도서관으로 이루어진다. 재능 기부 센터는 주중에는 교육기관 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주말에는 재능 기부 장터가 되어 마당과 소통하며, 재능기부 축제의 장이 되어준다. 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이며, 문화적인 기관이다. 잠시나마 도심 속 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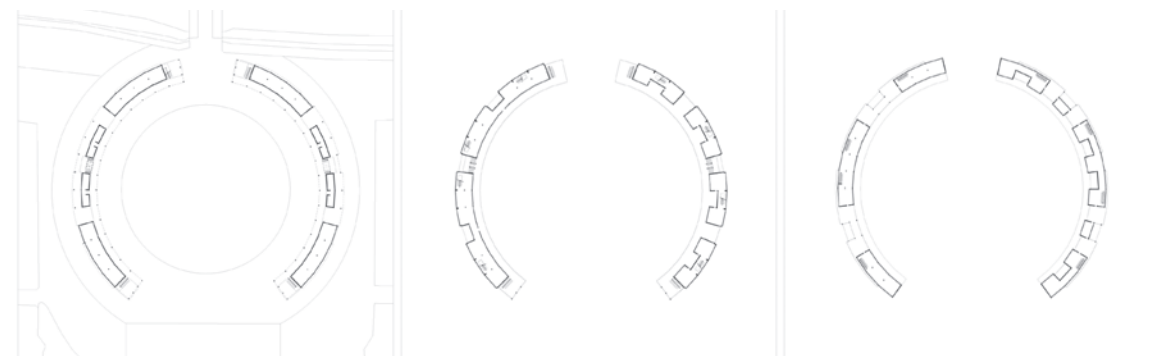
한옥은 이제 얼굴을 바꿔 현대인에게 현대적인 모습을 자연에게는 자연과 대응하는 얼굴을 뽀낸다. 양면성을 띄는 한옥은 도시와 인간,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이음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계획부문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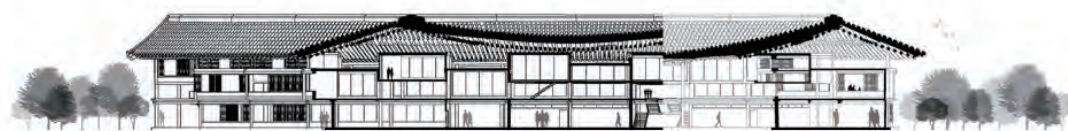
이음매

한남대학교
유현호
정태규
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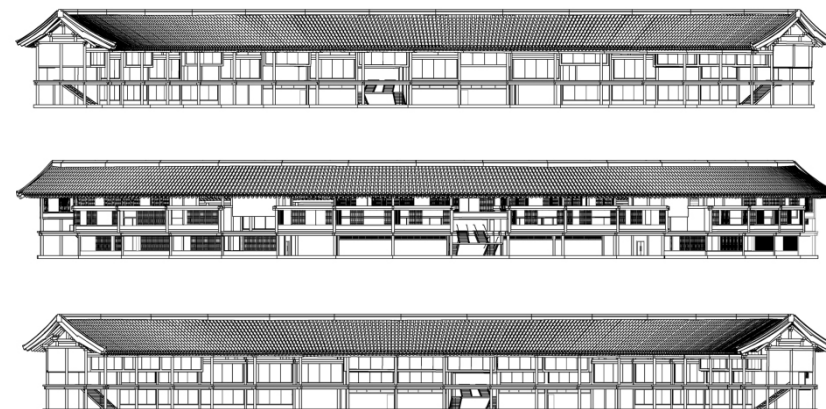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계획부문 입선



한국은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식민의 참담함을 겪고, 이어 미국군정의 지배를 받았다. 국민소득 100달러에도 못 미치는 세계최빈국의 동족상쟁 전쟁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세계가 극찬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지금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고속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서구의 마스터플랜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고유의 땅을 유린하기 시작해, 우리 삶의 환경을 파괴하고 정체성마저 잃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는 더 좁은 면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더 단절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모여사는 법을 알고 나누며 사는 지혜를 알던 우리 한옥은 현대인들의 부동산적인 가치에 묻혀 상상의 영역으로 분리되었다.

우리는

한옥으로써 이러한 우리시대의 자화상에 대한 변형가능성을 제시한다. 세계인의 배움터인 국제학교를 한옥으로 짓는, 이와같은 변화의 초입에서 적극적으로 세계인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장소적 한옥시스템의 제안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고 한옥 본연의 가치와 전통적 맥락을 이어 세계로 나아가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건축적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배치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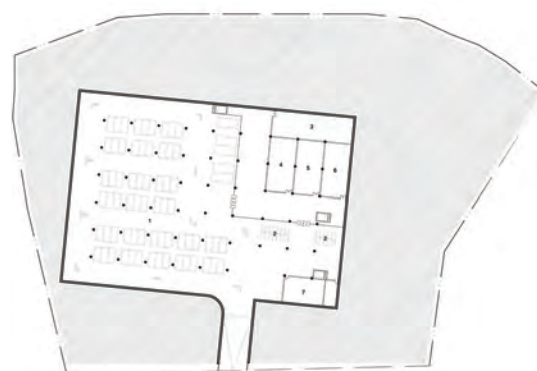
국제학교 ?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국자와 한국유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적인 배움의 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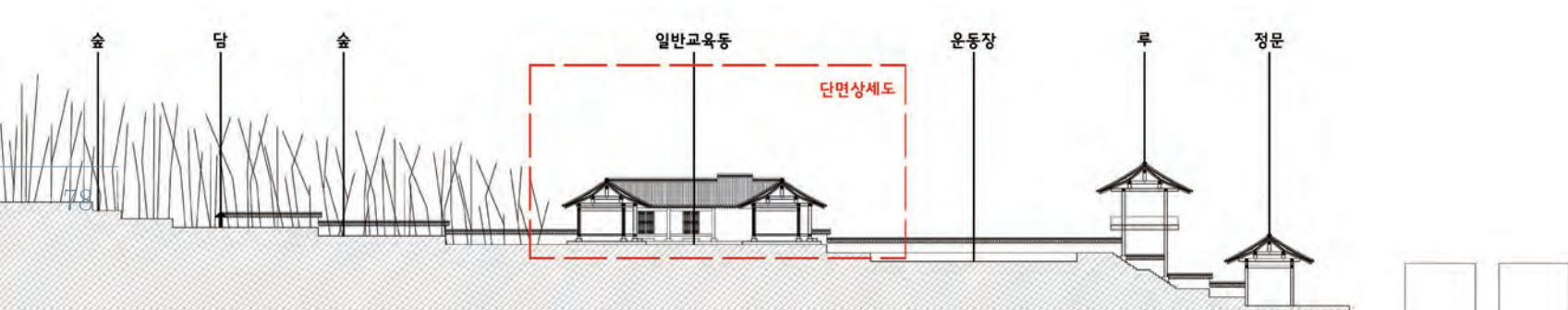
국제학교 + 한옥

한옥은 불편하다. 화장실도 외부에 두어 집을 돌아가야 하며, 우물도 담장 밖에 위치해 멀지만 마을사람들과 나누어 쓰기에는 편하다. 공간도 비좁아 여럿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면 한옥 만큼 편한 것이 없다. 서로를 배려 할 수밖에 없다. 다른나라, 다른인종,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한옥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것이다. 불편함의 미학, 국제적인 배움의 터 한옥이다.

지하 평면도



단면도



단면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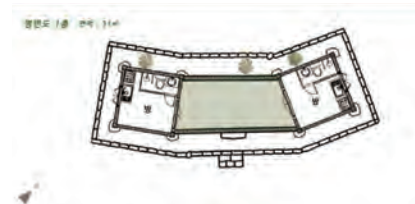
홍익대학교
이철주
이재단
전병규
백승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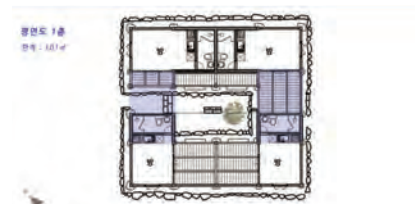
2세대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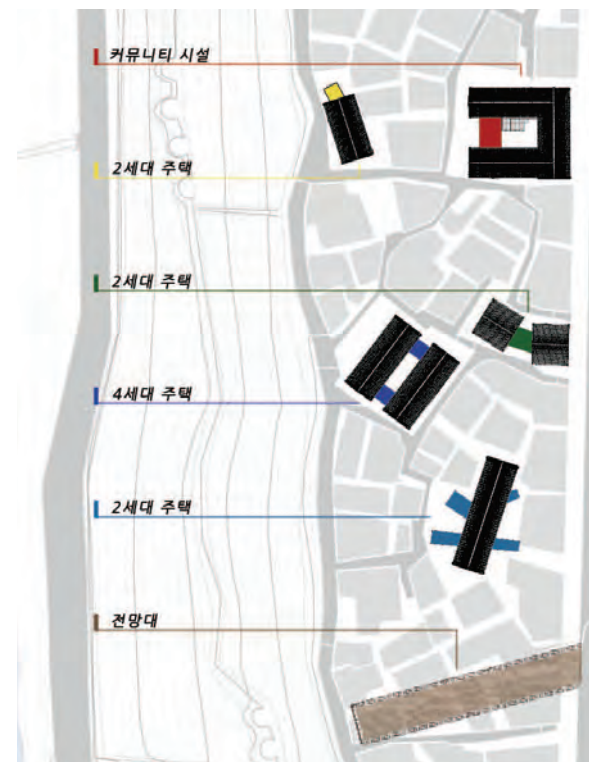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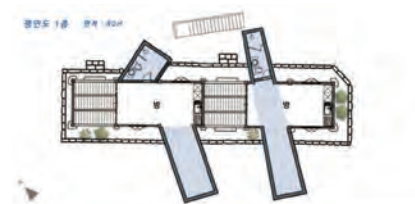
2세대 주택



4세대 주택



2세대 주택



탈은폐(Entbergung)를 통한 한옥의 재해석

한옥은 골목골목 한 집 한 집이 모두 각자의 위치에 맞게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즉, 한옥은 (중략) 주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맞춰 넣어, 그 관계를 살려내는 것이 그 본질이다. (중략) 우리가 이러한 상황(현대 도시주거의 문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힌트.... 인간의 본성인 '탈은폐(Entbergung)'가 바로 그것이다. 기술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버리고, 사물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는 방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5회 AURI 인문학 포럼 논문공모

“기술문명 속에 ‘거주함’ : 현대 한국 도시주거의 문제”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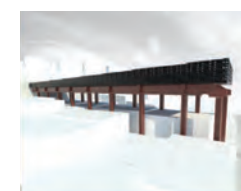
현재 우리의 주거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2009년도에 참여했던 AURI 인문학 포럼 때와 지금의 상황은 크게 변화한 것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한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옥은 현재 대중화/보급화라는 이름하에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1900년대 중반, 전후 도시주거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음에도 대중화/보급화라는 이름하에 아파트가 대한민국을 뒤덮어버렸던 그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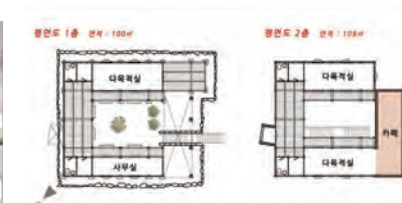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는 부산 영도구의 흰여울문화마을에 한옥에 대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해보았다. 경사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산이라는 도시, 부산의 대표적 장소성이라 할 수 있는 바다와의 관계, 그리고 흰여울문화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 및 주변과의 관계를 담은 한옥을 계획해보았다.

계획의 핵심은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어떠한 한옥이든 자연적 조건, 주변 상황, 땅의 형상, 대지의 레벨 등이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획일적 계획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탈은폐(Entbergung)'의 방식으로 한옥에 대한 타이포로지(typology)를 추출하여 계획을 진행하였다. 자연(하늘)의 조건과 땅의 조건,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스토리,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어나가는 주민들의 삶의 가치들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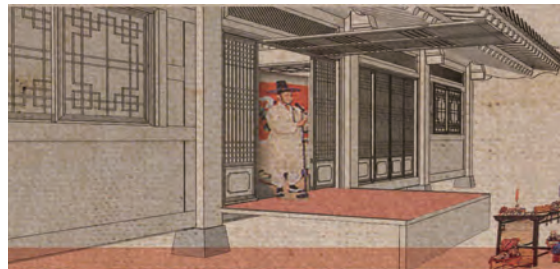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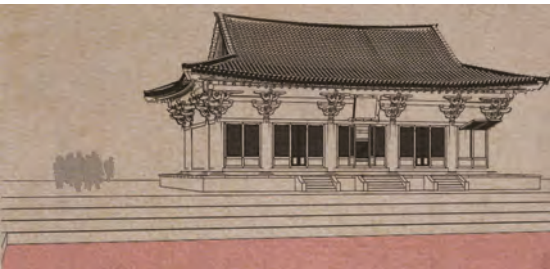
커뮤니티 시설



계획부문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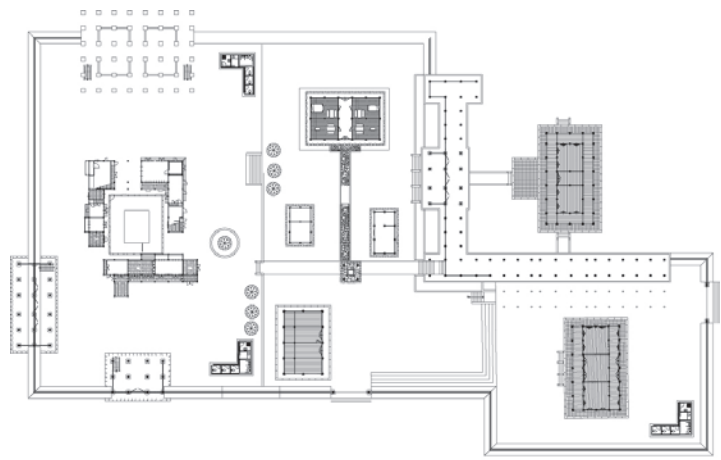
한옥이란 그릇에 관계를 담다

동의대학교
박지훈
유창욱
강봉관



배치도

- 1. 둔덕
- 2. 공원
- 3. 연못
- 4. 카페
- 5. 쪽문
- 6. 정문
- 7. 공방관
- 8. 주차장
- 9. 시민화랑
- 10. 민속공연장
- 11. 시립박물관
- 12. 지상쇼핑몰
- 13. 실외공연장
- 14. 쇼핑몰 광장



평면도

한옥의 매력은 변하지 않는다.

양곡과 안허리곡, 자연과의 어우러짐 등 한옥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옥 또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한옥 고유의 아름다움을 없애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판단하여 기본의 아름다움을 가져가되 새로운 구조,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를 통해 단점을 보완하려 했다.

인천 송도에 무늬만 한옥마을이 들어서게 되었다. 또한 인천은 청소년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한옥마을 앞 공터에 청소년과 국제업무 지구의 외국인을 흡수 할 수 있는 복합문화 단지를 조성하였다.

송도의 높은 빌딩도심속 한옥의 스카이 라인, 기존 한옥마을과의 축을 생각하여 빌딩은 산이 되고 도로는 강이 되는 풍수지리를 생각하여 배치하였다. 청소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한옥은 화랑이라 생각하였다.

우선 사용자들의 목적에 따라 그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고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서 다양한 공간의 구현이 가능하며 다른 상황들의 가능성을 생각하였다. 들창과 걸쇠를 사용하여 색다른 공간을 만드는 한옥의 형태는 뛰어나다고 할 수있다. 하지만 창호 자체를 옮겨 다른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필요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했다. 공간의 변화를 줄 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았다.

한옥에서 보수 수리가 가장 쉬운 곳은 마루였고 동귀틀과 마루널을 넣었다 빼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기존의 건물의 기둥 앞에 가기둥을 세워 놓아 사용자의 특성 및 조건에 맞게 마루널을 세로로 끼워 넣어 공간을 변형하도록 생각하였다. 들창과는 다르게 사용용도에 맞게 실의 크기변화를 줄 수 있다.

가기둥은 H빔 에 나무조각을 하여 붙여 목조가구의 스펀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재의 가격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전통 기와 방식인 습식은 적심과 누르개 기와3겹잇기를 하여 만든다.

지붕의 무게증가로 인하여 하중을 받치는 기둥들의 지름이 더 커져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지붕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적심을 사용하지않고 적심의 기능인 물매잡기와 누수를 방수합판과 시트방수지를 우물천장의 결구와 같이 만들어 사용하여 누수문제가 해결되고 그리하여 2겹잇기를 하여 지붕의 무게를 줄이는 것을 생각하였다.

입면도



단면도



계획부문
입선

변하지 아니한가

배재대학교
정광민
박태연
진익현



人, IN 사람들을 안으로 모으다.

현대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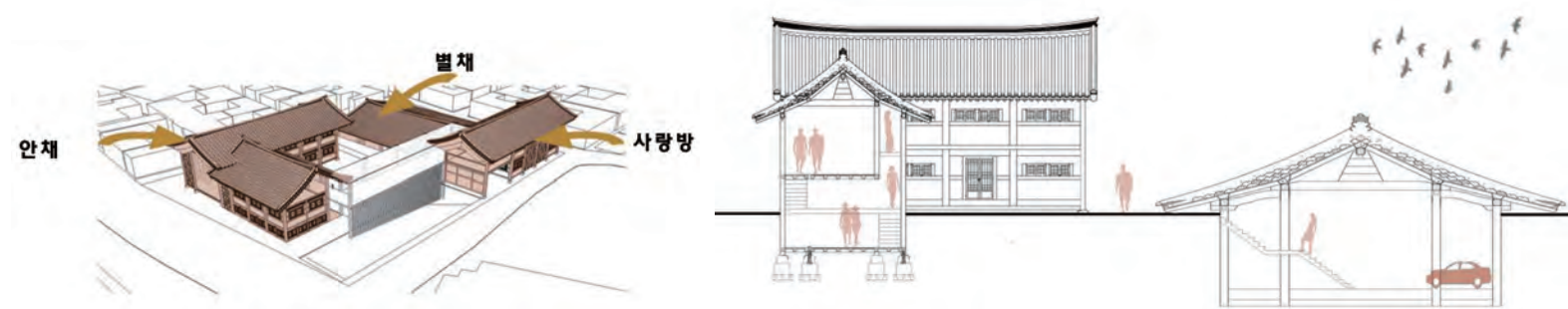
그에 맞게 사람들도 변화하고 생활들도 변화한다. 선택한 대지는 도심화가운데 변화하고 있지만 천천히 변화하는 익선동의 한옥마을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익선동 주민들은 그곳에 오래 살고 한옥을 지켜가고 있는 분들이다. 현재 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분절이 일어나 동선의 흐름이 끊기고 있다. 이를 보완해 주민들의 모여 옛 마을의 특성처럼 모여 함께 음식도 먹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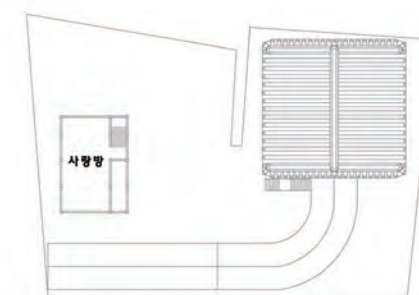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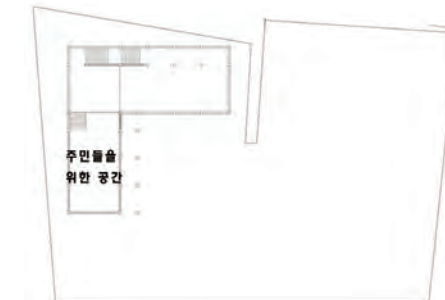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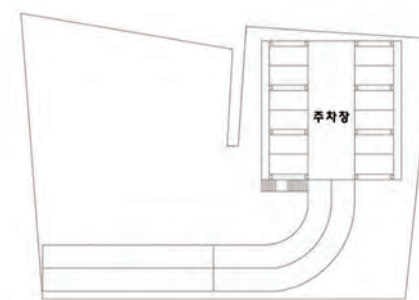
또 한옥의 수평적인 칸 나눔을 수직적인 칸 나눔과 스킵을 이용하여 수평적인 연속적인 공간이 아닌 수직적인 연속된 공간들을 느낄 수 있다.

개방성과 한옥의 독립성과 변화하는 공간의 장점들을 스킵을 이용하여 수직적 독립성과 변화공간을 만들었다. 동선과 입체적인 유동감을 주고 동선의 연결을 짧게 해주는데 장점이 있어 1500을 내려 스킵공간을 만들었다.

또 지붕 밑 공간을 이용하여 연결 마루로 수직적인 공간들을 연결해주고 열린 마루를 이용해 좀 더 자유로운 동선을 제시했다. 또 분절된 마을과의 동선을 연결해주면서 여러 곳으로 만날 수 있는 골목길들을 만들어 동선의 유연함을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을 안으로 이끌어 모이게 하는 것이 이번 작품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배치도



계획부문 입선

人(인). IN(인)

대구카톨릭대학교
신원희

계획부문 입선



한옥? 찾아가는 우리의 전통?

도시의 빠른 성장 덕분에 현대는 획일화 되어가고 있다.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는 하나같이 똑같은 고층 건물들만이 살아남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현대인들은 아직 '한옥'이라는 우리 건축을 느끼고 만지고 경험해보려고 찾아다니고 있다. 한옥은 '옛 것'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한옥은 '옛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에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거에 그쳤던 한옥의 고정관념을 깨고 색다른 한옥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옥과 현대건물이 더해진 주민 자치 센터를 제시해 본다.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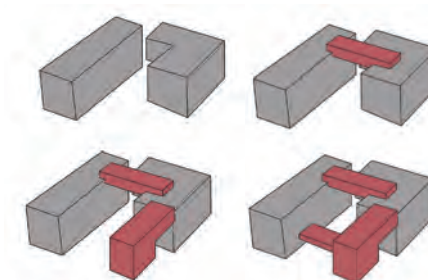
한옥은 채분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채들의 역할에 따라 그 주변에 텃마루가 생기고 담장이 생기고 마당이 나뉘고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변화를 현대건물에 더해 쌓여만 있는 현대건물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면서 색다른 공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옥의 회랑은 주민센터의 마당을 경계지어 주지만 사람들의 접근과 주민센터의 인식을 더해 준다. 이로써 회랑요소는 마당과 외부, 두 매스의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로서 역할하게 된다. 한옥의 단점은 고층으로의 발전에 약하다는 것인데 수평적 한옥이 현대건물 위로 올라가 두 매스를 이어주는 브릿지로 역할을 하고, 현대건물과 이어지면서 공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또 한옥 브릿지에는 쪽마루를 둬으로써 마당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매스에 이중한옥을 더해 한옥칸을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1층의 마루가 가로공간과 연결되어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공간을 마련해준다. 이렇게 다양한 한옥과 현대건물의 더해짐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에게 한옥이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음과 동시에 평소에 상상하지 못했던 한옥과의 소통을 기대할 수 있다.

선정한 사이트는 춘천 팔호광장이라는 오거리가에 위치해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오거리와 뒤쪽으로는 주택지역이 펼쳐져 있는 곳이다.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여 입구를 통해 열린 주민센터로서 누구나 '더한' 한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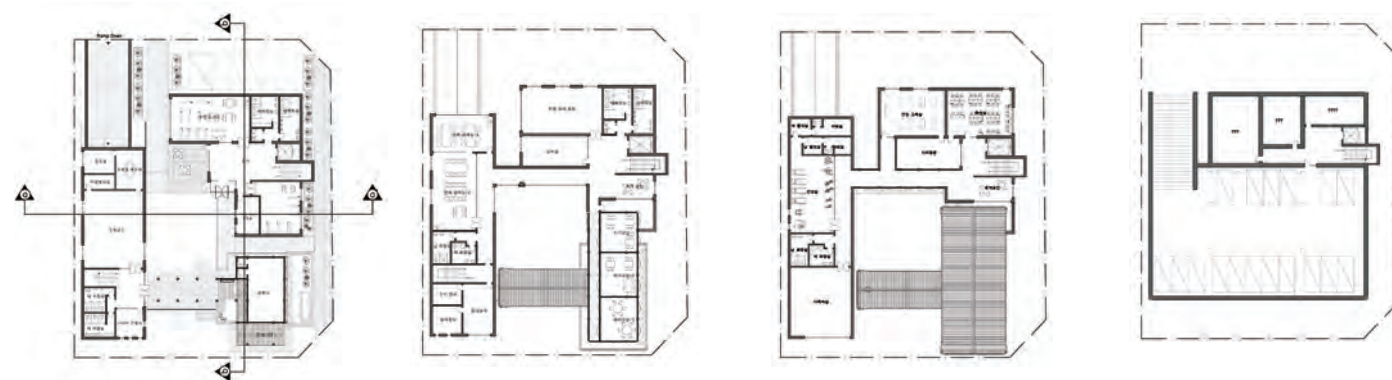
현대건물과 한옥이 회랑, 브릿지, 중첩으로 더해져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어 내고 그 공간들을 하나로 만든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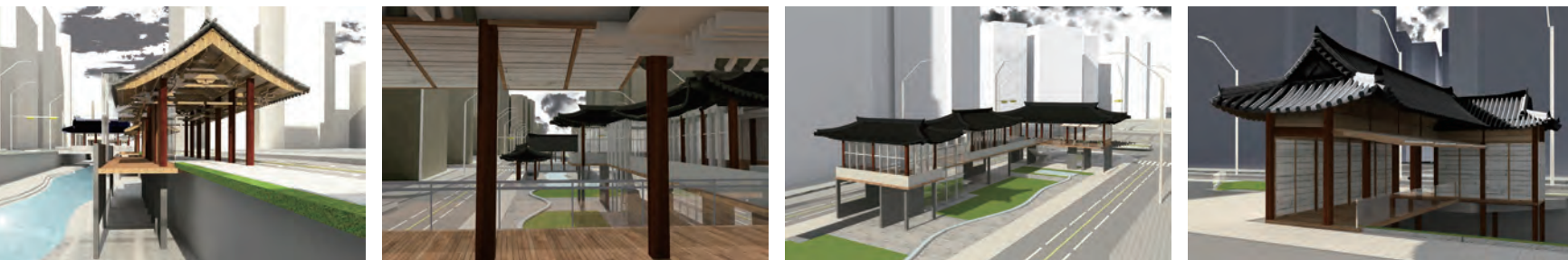
지하주차장 평면도



단면도



강원대학교
백다혜



A 길게만 느껴지던 청계천의 인도와 도로 위의 인도에 수직적인 공간을 넣어 전시와 광고 기능을 넣었다.

청계천 밖에서 안을 볼 때에는 한옥의 선과 청계천의 자연이 인상적이며 안에서 밖을 볼 때는 전시와 한옥의 모습이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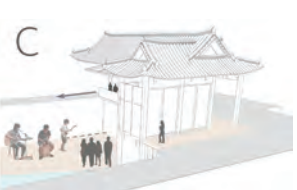
들문을 열었을 때는 동선에 피해를 주지 않고 들문을 닫았을 때에는 동선이 길어지는 전시의 동선을 가지게 한다.



B 도로 인도와 청계천의 인도에 연계성을 주고자 LEVEL-0, LEVEL-1, LEVEL-2를 도입하여 자연 속에 또 다른 자연을 선사한다.

아프리움을 만들면서 어두웠던 부분에 빛 기둥이 생겼고 한옥 지붕에 아프리움이 관입하면서 예전 한옥과는 다른 또 다른 지붕을 만들었다.

현대에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C 광통교 부근은 옛부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도성을 지날 때 다리를 통해 모두 지나갈 정도로 동선이 많고 모이는 사람도 많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들문을 열었을 때 통로가 되고 들문을 닫았을 때에는 버스킹을 하거나 노점상들의 영역성을 만들어준다.

사람들이 모이고 지나가는 공간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들문을 통한 청계천의 재복원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삶은 다양해졌고 생활 방식은 바뀌었다.

현대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었고 기존보다 [다양한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은 이런 변화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문헌, 답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양식이 되었다.

우리는 한옥의 [들문]에서 공간의 '관입', '개폐' 등을 착안해, 현대인들에게 맞는 공간을 창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상업 지역인 청계천 주변에서, 사람들은 [낮]동안에 넓게 열려있는 공간을 통해 움직이며 바쁜 일상을 계속 할 수 있다.

또한 [밤]이 되면 들문을 통해 공간을 바꾸고 버스킹, 전시, 축제, 등을 같은 공간에서 계속할 수 있다.

이 계획안은 한옥의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의 변이성을 현대인들의 복잡한 삶에 대입했다. 사람들은 이런 공간을 일상에서 사용하고, 멀어진 한옥을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머릿속이나 문헌 같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한옥을 우리 주변으로 끌어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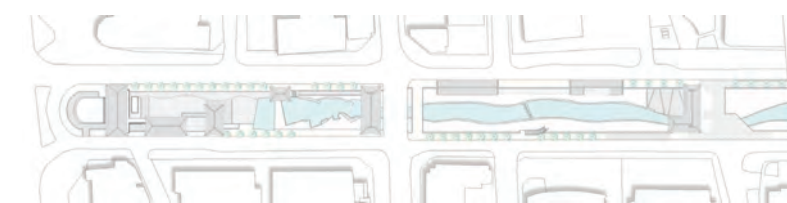
우리는 현대인들의 복잡한 움직임을 보여 줄 수 있는 대표적 공간을 상업지역이라 생각했다. 또한 집회, 전시, 버스킹 등을 비교적 현대에 새로 일어나는 활동이라 정의했다.

한옥을 일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한옥은 새로운 공간들과의 연계성을 지닌 형태로 발전되어야 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반영해 또 다른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해야 했다. 이것은 [공간의 변이성], [유동성]으로 대변 될 수 있었고, 우리는 한옥의 [들문]에서 이 같은 성질을 찾아냈다.

더 이상 노점상들은 인도에서 사람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2층 문을 막으면 간단히 공간이 생기는 한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전시공간은 들문을 통해 여러 가지 동선이 생겼고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전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광통교의 광장은 공간을 변형함으로써 2가지의 광장을 분리시키거나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배치도



계획부문 입선

계획부문
입선

들문에 들다

들문에
들다

전남대학교
송지영
김소명
홍동환
문형진

입면도





상상 속 한옥을 일상으로

전통이란 일반적으로 한 집단이나 공동체 안에서 지난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문화적 맥락 즉 사상이나 관습, 행동양식을 말하는데, 이러한 전통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적용하면 과거와 현재를 이어줄 매개체가 될 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과거의 사회적 문화와 선조들의 정신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으며, 국민의 가치관과 생활방식도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그에 따른 의식주 양식도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었다.

특히, 주거공간은 우리 생활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옛 선조들의 생활과 삶의 지혜를 보다 쉽게 접 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화의 영향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조금은 동떨어진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현대사회'와 '한옥'의 문제점에 대해 접근해 보았다. '실아화피(失我化彼)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현재 생활에 활용하고자 했다. 기존의 문화재에 숨을 불어 넣고 알리며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한옥을 만들고자 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남간정사는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 단순한 산책로로 이용되며 한옥에 대한 인식은 무지하다. 이렇듯 도심 속 여러 문화재들은 도심과 완전히 단절된 채 원활한 소통을 못하고 있다.

우리는 남간정사맞은편에 매개체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한옥마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는 공원에 연장선이자 새롭게 한옥문화재를 인식시켜 다가갈 수 있게 동선을 유도하고 거주자들에게는 마주보는 배치에 형태를 따라 1인1가구의 현대 주거문화에서의 마당공유역할을 계획함으로써 마당을 통해 집과 집이 연결되고 마당을 통해 다양한 연계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 마당공간을 재해석 했으며, 인근지역 학생들에게는 전통한옥에 체험기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한옥문화재를 되살리고, 나아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문화재를 빛을 보게 하며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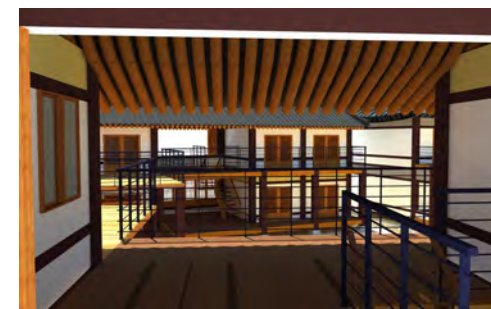
계획부문 입선

마주韓(한) 채

1F PLAN



2F PLAN



C Type

B Type

A Type



한남대학교
박용훈
김군식
박영준
이해리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품집

발행처 | 국토교통부

전 화 | 044.201.3783

팩 스 | 044.201.5574

인 쇄 | 2015년 10월 25일

발 행 | 2015년 10월 25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전 화 | 044.417.9600

팩 스 | 044.417.9608

이메일 | hanok@auri.re.kr

홈페이지 | <http://hanokdb.kr>

2015©국토교통부

이 책은 수상자들의 동의하에 국토교통부가 편집한 출판물로
각 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